

제427회 국회  
(임시회)

##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15일(화)

장 소 국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안규백)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안규백)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안규백) 인사청문요청안 ..... 1
2.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안규백) 인사청문회 ..... 1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안규백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를 하고 이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안규백)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안규백) 인사청문회

(10시02분)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안규백)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안규백)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와 간사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서 먼저 오전에는 안규백 후보자의 선서 후에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청문회를 속개하여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외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쳐 안규백 후보자께서 국방부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64년 만에 군 출신이 아닌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군 내부

적으로 산적한 현안뿐만 아니라 끝나지 않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증액 요구 등 대내외적인 여러 도전 과제를 극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회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능력, 자질, 도덕성이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절차적 통제를 통해서 공직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질 국방부장관에 대한 검증의 장이라는 엄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검증에 중점을 두는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고 안규백 후보자가 앞서 말씀드린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국민들에게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신 안규백 후보자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국방부장관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전체를 대신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후보자의 소신과 국방정책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안규백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안규백 국방부장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5일

공직후보자 안규백

○**위원장 성일종** 이어서 안규백 국방부장관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제나 우리 국방을 위하여 함께하신 성일종 국방위원장님과 국방위원 여러분!

군을 향한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서북도서에서, 우리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여념이 없는 국군장병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불별더위에도 국가안보를 위하여 각자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군무원, 공무원 그리고 모든 국방 가족 여러분의 헌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2008년 처음 등원한 이래 대부분의 의정활동을 이곳 국방위원회에서 하였습니다. 국가의 제1 덕목은 안보라는 오랜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경험과 학습 그리고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쌓은 시간을 바탕으로 이제 저는 국민주권 정부의 첫 국방부장관이자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장관후보자로써 국민께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뢰와 소통 그리고 강력한 힘으로 만들어 갈 국민주권정부 국방정책의 길에 따뜻한 격려와 냉철한 질의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군은 심각한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 자원의 급감과 국제 안보질서의 불확실성 증대, 첨단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전쟁 양상의 변화는 물론이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북중러의 전략적 밀착은 동북아의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권은 국민을 지켜야 할 총칼을 국회와 국민께 들이댔으로써 국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고 제복의 명예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처받은 국민과 국군장병 그리고 군 가족의 자부심을 위로합니다.

문민 국방부장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국방위원으로서 일부 권력자의 잘못된 이유로 우리 군의 성취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법 비상계엄에 관하여 신상필벌하고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음으로써 우리 군이 권력의 사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민 통제를 공고히 하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진정한 국방을 완성하고 제복의 명예를 되살려야 합니다. 신뢰와 소통 그리고 강력한 힘의 완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첫째, 우리 군을 진정한 국방을 구현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겠습니다.

군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는 가운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문민 통제를 확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실추된 제복의 가치와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 입은 장병과 가족들의 자부심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장병들이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처우와 복지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인사를 통해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가진 인재들을 등용하여 창조적 사고를 기반으로 군의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정신전력 강화와 AI 첨단 방위 역량 구축, 국방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방개혁은 속도보다는 방향에 중점을 두어 실질적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관성과 시각에서 탈피하여 군의 구조와 체질을 근원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국방 전반에 AI를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을 과감히 접목하고 효과적인 국방 자원의 배분과 효율적인 국방 운영을 정착시켜 우리 군을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강군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강한 정신전력은 대장부터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의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지향해야 할 가치입니다. 흔들림 없는 국가관을 바탕으로 군이 수호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전군이 하나의 가치공동체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뒷받침되는 국방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지역 및 글로벌 국가와의 국방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익 관점에서 주변 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모색하겠습니다.

넷째, 방산국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겠습니다.

방위산업은 힘을 통한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입니다.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든든한 성장동력이 되어 국가경제와 민생에도 기여하도록 민관군이 상생하는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현대전의 양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방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유연하고 기민한 국방 획득 및 연구개발체계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강력한 국방력으로 억제력을 갖추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강한 힘으로 평화를 만들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방부장관후보이자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누구보다 뛰어난 우리 군과 함께 누구보다 성숙한 국민의 성원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날카로운 여야 의원님들과 협력하며 국민의 군대를 반드시 실현해 내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위원님들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충고의 말씀을 겸허히 듣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안보를 위해 국방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저의 생각도 성심을 다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규백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후보자께서는 유념을 해 주시고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강선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강선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드리세요.

○강선영 위원 위원장님, 후보자에게 자료 미제출 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번 이재명 정부의 안보 라인 인사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엄연히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고, 국무총리는 미국 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5년 6개월간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국정원장은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소행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사드 배치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통일부장관은 통일부 명칭마저 바꾸자고 하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북한의 위협의 핵심인 한미연합훈련 유예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는 국방부장관후보자는 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입니다. 공교롭게 앞서 대통령, 총리는 군에 안 갔다 오셨고요 장관후보자는 방위병 출신입니다. 따라서 국가안보에 위기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음을 대신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재명 정부 인사들이, 그동안의 청문회를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증인 출석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이러한 부분을 하나의 전략으로 짜고 나온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장관후보자께서는 병적기록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해서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983년 11월 5일 방위병으로 소집돼서 22개월을 근무하고 85년 8월 31일 일병으로 소집해제되었습니다.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은 14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14개월보다 무려 8개월이나 많은 22개월을 복무하셨는데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1분 더 드리세요.

○박선원 위원 거짓말하는데 주지 마세요.

○강선영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 왜 8개월이나 더 복무하셨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적기록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라고 제출을 거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는 장교, 부사관, 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다양한 신분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면제받기도 합니다. 저는 방위병 출신이라서 장관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특히 후보자께서는 17년을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셨고 그중 14년을 국방위에 계셔서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안보 문제에 있어서 매우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50만 대군을 지휘하는 장관후보자께서 병적기록에 대한 근거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고 명확히 소명해야 앞서 언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쌓아 오신 국방위에서의 신뢰를 지키고 흠결이 없도록 하려면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추가적으로 의원실에서, 주식거래 내역하고 사인 간 채권거래 그다음에 상속세 납부 현황 등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래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성일종 정청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 국가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같은 행위입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서 외환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 중인데요. 내란 우두머리가 수석당원으로 있었던 내란 동조세력 국민의힘에서 방위병 출신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방위병으로 국가안보에 충실했던 그분들에 대한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조선 임진왜란 때도 도망간 왕보다 그리고 편편히 뚫렸던 그런 장성급 군인보다 실제로 나라를 지켰던 의병, 백성들이 실질적인 애국자였습니다. 이번 내란사태 때 실제로 내란을 해제하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동참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고 그 부분부터 먼저 석고대죄하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장관후보자는 국방부장관으로서 갖춰야 될 필요충분의 조건을 충분히 갖춘 A플러스급 장관후보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4년 만에 5·16 군사쿠데타 이후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이 대한민국에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잘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후보자께서 병적기록 등에 대해서는 직접 밝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방위병 출신들을 모독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청문회는 말도 되지 않는 엉뚱뚱한 저런 정치공세를 하지 말고 안규백 장관후보자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식견과 국방개혁에 대한 정책질의를 집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위원장께서 이런 발언들은 자제시키고 의사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일종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규백 후보자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국방위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셨습니다. 폭넓은 식견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갖출 부분을 많이 갖추신 분입니다.

강선영 위원님께서 방위병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절대로 폄하하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박선원 위원 폄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선영 위원 출신이라도 문제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위원장 성일종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지……

○정청래 위원 그 방위병이라는 말을 뭐 하러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합니까? 사과하셔야 돼요, 이진.

○위원장 성일종 정청래 위원님, 전문성이나 17년 중에서 14년을 여기 계셨다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요 선에서 마무리하시고요.

○박선원 위원 마무리 안 돼요.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꼭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하는데 왜 그걸 방치하시려고 그러세요?

○한기호 위원 누가 거짓말을 해요?

○박선원 위원 1분만 주세요. 내가 말할게요.

○위원장 성일종 의사진행발언을 양쪽이 한 분씩 하셨습니다.

○박선원 위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한 분 시키세요.

○한기호 위원 정상 질의 하게 해 주세요.

○박선원 위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돼요.

주세요.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위원장 성일종 아니, 여야가 한 분씩 하셨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고 가야하지……

○박선원 위원 아니,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이자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책임지시라고 그럴 겁니까, 거짓말을 했는데?

○김병주 위원 한 번만 주세요. 왜 안 주려고 그래요.

○한기호 위원 무슨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기를.

○박선원 위원 내가 말할게요, 그러니까. 발언권 주세요.

○한기호 위원 누가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기를?

○박선원 위원 거짓말이라고 확인해 드릴게요. 빨리 주세요.

○한기호 위원 무슨 거짓말을 해요?

○박선원 위원 말해 드릴게요. 빨리 주세요.

○정청래 위원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박선원 위원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빨리 주세요.

○위원장 성일종 알겠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드리는데 박선원 위원님, 회의를 하실 때…… 우리 계속 회의를 해 오셨잖아요. 박선원 위원님은 회의하는 것을 좀 정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정제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고 있어요.

○위원장 성일종 지금 그게 정제하는 겁니까?

○박선원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매번 할 때마다 그렇게……

○박선원 위원 매번 할 때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위원장.

○위원장 성일종 아니, 너무 분위기를 좀…… 위원장이 회의하는 것도 좀 도와주고 이러셔야지. 이번은 드릴 텐데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그 어느 때보다도 문민 장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45년 만에 군사반란, 내란이 있었고 그것을 수습하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육해공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군 전체를 바라보면서 16년, 17년의 국방위원 경험을 가지고 우리 국군을 잘 이끌어 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대가 큰 청문회고 정책청문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왜 정치공세를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누가 대북송금을 했어요? 송금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강선영 위원 송금 의혹이라고 했어요.

○박선원 위원 송금이 아니에요! 송금이라니, 누구도 송금한 적이 없어요. 어느 은행 기관을 통해서 어느 송금증서 있는지 가져오세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5년 6개월 감옥살이했다는데 민주화 시대에 감옥살이 잘한 거예요. 민주화 투쟁한 겁니다. 3년 살았어요. 무슨 5년 6개월 운운해서 거짓말하세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

한미연합훈련 운운하시는데 통일부장관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에 돈 많이 들고 쓸데없는 거다라고 말할 때는 한마디도 말을 못 했던 사람이…… 통일부장관으로서 남북관계 개선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연합훈련 연기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뭐가 문제입니까? 왜 국방부장관 청문회 하는 데 앞에 대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각 위원들이 발언하실 때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도 염두에 두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위원님들 발언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안 하시는 게, 서로들 예의를 지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김병기 위원 용어 하나만, 용어 하나만.

○위원장 성일종 원내대표님……

○김병기 위원 계속 그 용어가 나올 것 같아서요.

○위원장 성일종 김병기 대표님, 그냥 다음에……

○김병기 위원 아니, 용어가 나올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방위병에 관한 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아니, 그것……

○한기호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한테 기회를 한 번 주세요, 했으니까.

○위원장 성일종 자, 그만들 하세요.

○한기호 위원 말하고 싶은 사람 많아요.

○위원장 성일종 김병기 위원님, 이따가 발언하실 때 그때 또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김병기 위원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그만하시지요.

○임종득 위원 아니, 저기도 했는데 우리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저도 할 말이 있는데 참았는데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하시고 의사진행발언 여기서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안규백 후보님을 임명 지정한 것, 64년 만에 문민 장관으로 기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까 방위병 출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이 방위병 출신이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이라고 하는 군정과 군령을 동시에 지휘를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과연 이분이 도덕적으로나 능력적으로 이것을 잘 갖췄느냐를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관련된 자료들을 요구해 왔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됐어요. 특히 개인 신상에 관련된 병적기록이라든가 자녀의 휴가 문제 관련되는 부분들을 잘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강선영 위원께서도 그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꼬투리를 잡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다 밝히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서면으로든 그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구했던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풀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실지 국방부장관으로서 군령과 군정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을가에 대한 우려의 질문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준비되어 있음을 입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만하시고요.

후보자님,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병적기록을 제출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위원장 성일종 또 기타 자료 요청을 강선영 위원님께서 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적기록은 여당 위원님들도 요청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위원장 성일종 그런데 이것은 14개월에서 22개월까지 8개월이 늘어난 거란 말이지요. 14개월 만에 제대를 하셔야 되는데 22개월까지 가서 8개월이 늘어 간 이 사유가 뭐냐.

그리고 제보에 의하면, 많은 제보가 들어오는 게 근무지 이탈을 해 가지고 혹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영창을 갔다 온 이런 기록들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제보가 꽤 있단 말이지요. 위원들께서 말씀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시를 하셔서 병적기록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 주시면 이 회의가 좀 매끄럽겠습니다.

또 이 병적기록은 국방부장관으로 가는데 군생활 했었던, 지금 방위병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병장으로 제대했든 뭐 어떤 걸로 제대했든 생활에 대한 모범이나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려 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지휘를 해야 되는, 군령을 행사해야 되고 군정을 행사해야 되는 장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위원님들 질의 간에 제가 소상히 답변을 드리고 제출할 부분이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러니까 일단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나서 판단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 위원장님, 용어를 지금 계속 잘못 쓰고 있는데 용어 정정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도 아마 모르고 쓰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성일종 김병기 위원님……

○김병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요.

○위원장 성일종 짧게 하시지요.

○김병기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같은 경우는 군에서 장군으로 전역을 하셨는데요. 방위병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가 차별받고 그런 용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용어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식 용어로, 오늘 쓸 때 단기사병으로 쓰시고 기간병, 그러니까 사병들은 사병이라고 쓰시고 전투병 이런 용어들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들을 다시 한번 정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축하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감사합니다.

○한기호 위원 후보자와는 18대 국방위원회에서 처음 만나 가지고 15년간 함께 일한 민주당 내 최고의 제 지인입니다. 훌륭한 인품과 외유내강의 정치인으로서 제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인 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검증에는 추상같이 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후보자님의 방위병 복무, 단기병사로서의 근무에 대한 의혹이 많다는 것은 본인이 잘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한기호 위원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병적기록카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의 학적부를 봤습니다. 이것 보시면 82년도에 성균관대학교 1학년에 입학하고 83년도에 2학년이 되고 83년도 11월 달에 복무를 시작했으니까 83년도 2학년 1학기까지 마친 겁니다. 그러고서 방위병 복무가 시작되고 85년도에 소집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소집 해제된 뒤에 85년 9월 달에 다시 성균관대학교 복학을 하면 86년도 3월 달에 3학년 1학기가 되고 9월 달에 2학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4학년은 어떻게 다녔느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무 기간을 같이 합산을 해서 보면.

다음은 보여 주시지요.

그래서 제가 성균관대학교에 요청을 했습니다. 학교에 학적부를 달라고 했더니 학적부가 왔습니다. 온 학적부가 바로 저 그림에 보시는 겁니다. 저 그림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보시면 1982년도에 1학기, 2학기 다닌 걸로 도장이 찍혀 있지요. 83년도 1학기 다녔는데 2학기 때는 이미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근무가 안 되고 그대로 학교를 다닌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84년도에 장기휴가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장휴(長休)’ 이렇게 찍히지요. 그리고 85년도에 이미 학교에 복학을 해서 1학기부터 다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군대 복무와 학교를 동시에 다녔느냐? 그러면 학교에 있는 학적부가 잘못됐든가.

저 위에 또 하나 보십시오.

병역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저렇게 복학을 할 수 있었는가? 83년 11월 5일부터 입대해서 85년도 1월 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복학이 될 수가 있었지요. 그러면 둘 중의 하나,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든가 군 복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무엇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거기 때문에……

다음, 군 경력이 없는 국방부장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문 조사한 내용입니다. 저기의 53.3%가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

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하는 게 장관후보자가 헤쳐 나갈 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답변드릴까요?

○한기호 위원 아니, 한번 보세요. 이것은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서 국방에 관한 군정·군령,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 각군 총장을 지휘·감독한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다음.

그런데 장관후보자께서 자꾸 장교의 진급에 대해서 형평성을 얘기하시고 여러 사석에서 지역의 안배를 고려하겠다고 그러는데 군인사법 위반입니다. 장교의 진급은 바로 장교진급선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서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관이 미리 지침을 주든가 바꾼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기에서 대장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고 합니다. 또 전작권도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임기 내에 추진을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방위비 협상은 10억 달러를 100억 달러로 미군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렬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면 다음 수순은 미군 철수입니다. 여기에는 한미동맹의 약화가 가속화될 것이고 안보에 재앙이 될 겁니다. 오늘 인사말씀에서도 이런 내용을 언급을 하셨어요, 한미동맹에 대해서. 그런데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 봐 지금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한문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저 용어를 잘 아시지요? ‘거안사위(居安思危),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 지금 편안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다 건드려 보겠다고 그러면 국가가 위태로워집니다. 이 위태로움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이곳에 써 놓은 것은 지금 대통령님이나 그리고 다른 장관후보자들이 발언한 내용들에 걱정되는 것이 많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다음.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발언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죄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장관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거기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에 의해서 역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고 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죄인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안규백 후보자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제가 신검을 받을 때 갑종, 을종, 병종인데 을종을 받았습시다. 당시 서해안 지역은 을종 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면 군 면제가 됩니다. 11월 5일 날이 그해 마지막 입영 날짜였습니다. 사관학교와 달리 일반 대학은 중간고사와 함께 학기를 3분의 2를 마치면 학점을 인정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군번은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마지막 학기를 한 3주 정도 앞당기고 교수님들한테 성적 인정서를 받고…… 면제는 하면 안 되겠다. 군번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해 11월 달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제가 면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자동적으로 제가 강력히 원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기를 3분의 2를 마치면 학점이 인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병적기록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이 병적기록상에는 실제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정과 군령을 관장하는 국방부장관후보자로써 선불리 공개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제가 83년 11월 5일 날 단기사병으로 소집을 받고 그리고 14개월이 끝난 85년 1월 4일 날 소집 해제가 돼서 2~3월 달 동안 방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5년도에 3학년 1학기에 복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6개월간, 22개월이라는 것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게 산입된 겁니다, 복무기간이. 행정적 착오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 6월경에 부대로부터 며칠 동안 근무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연락을 받아서, 제가 그해에 부대 명령에 따라서 8월 달 방학 때 남은 잔여 임기를 복무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단기사병은 매일매일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그 부족한 만큼 일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위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방위병으로 복무하고 2~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면대 중대장과 군부대 하사가 저희 면대에서 예비군 교육을 받는데 그 현역병들한테, 한 10여 명이 되는데 점심을 좀 제공해 줄 수 없냐 그래서 무슨 점심이나 그랬더니 점심을 좀 제공해 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제가 만 22세였는데 어머니께서도 동네 아줌마들하고 함께,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약 2~3주간에 걸쳐서 군인들한테 점심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두고서 당시에 면대 중대장과 지역 파출소장과의 어떤 알력 관계가 있어 가지고 방위병을 시켜서 음식을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마 상부에 투서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해에 제가 근무하고 2~3개월 지나서, 어디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기무인가 현병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저를 불러서, 왜 점심을 제공했냐 이것을 서너 차례 제가 불러 가서 그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근무기록에 지금 안 들어간 겁니다. 별도의 사무실에서 현역들한테 약 3주간에 걸쳐서 우리 어머니께서 점심 제공한 것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받은 것이지요.

알고 보니까 이 자체가 복무기간에 포함이 안 돼서 제가 방학 때 학기를, 그해 6월 달에 며칠 더 근무해야 된다 이 얘기를 받고 방학 때 제가 며칠 더 군부대에서 복무를 하고 도장을 찍고 나온 것입니다.

오히려 저희 모친께서 이런 일로 상당히 많이 가슴 아파하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사실상 집에 여유가 있어서 군인들한테 점심을 제공해라 이런 부탁을 받고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1학년, 2학년을 마치면 90일의 교련 혜택을 받고 단기사병은 45일의 혜택을 받습니다. 저는 교련 혜택도 안 받고, 그 당시에 방위병 생활이 상당히 열악한 동

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한 2~3년 늦게 가서 동생 또래들하고 같이 받는데 제가 야간에 라면도 사다 주고 또 영어와 한문도 가르쳐 주고 이게 재밌어 가지고 제가 혜택 이수를 안 받고 만기를 채웠던 것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병적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군정과 군령을 관장하는 국방부장관으로서 공개한다는 것은, 제가 이게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학교를 다녔는데 제대증을 가지고 복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기록에도 나와 있다시피? 저는 그게 한 45년 전의 병무행정에 대한 그런 일종의 착오라고 할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야당 위원님께서 의혹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저의 여러 가지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제가 국방위원회에서 5선 동안 내내 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찰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기호 위원님께서 군경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고려시대 강감찬 장군과 권율·윤관 장군, 조선시대 초기의 김종서, 율곡 이이 선생 10만 양병설 이분들은 무관이 아니고 문관입니다. 저도 18대 전반기에 국방위 간사, 18대 후반기 국방위 간사, 19대 전반기 국방위 간사, 20대에 국방위원장, 한기호 위원처럼 3성장군은 아니지만 폭넓게 국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여러 가지 구성원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후보자님한테는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병적기록은 지금 설명하신 게 다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저는 이 병적기록에 대해서 세 번째 출마할 때 처음 봤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아니 아니……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아니, 그러니까 제가 최초에 85년 1월 4일 날 제대를 했다는 것을 확증을 받고 그 이후에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아니 아니, 좋은데……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어간에 학교를 6개월 다녔기 때문에……

○위원장 성일종 아니, 그렇게 지금 다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록에 다 나와 있고 병적기록은 병무청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해소를 하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니까 비공개라도 요구하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비공개 오픈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설명한 것하고 그대로 맞을 것 아니에요?

지금 왜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느냐……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아니, 지금 사실 기록, 학적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

대중도 갖고 가고.

○위원장 성일종 아니, 이것은 학적부이고. 그래서 병적기록에 예를 들면 지금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아니면 영창을 살았다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때문에 의문을 갖고 있으니.....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없다고 하는 것을 후보자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기록으로 보여 주셔야지요. 이것은 앞으로 군정과 군령을 행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지시하셔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영창 안 살았으면 무슨 책임질 거예요, 성일종 위원장?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지금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세요?

○박선원 위원 책임지세요, 그러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위원장 성일종 아니, 국회에서 위원들이 다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장관후보자 검증하는데 특히 병적기록은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지금 박선원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박선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적기록을 말씀하시면 되지 영창 운운하고 제대 운운하고 그래요.

○위원장 성일종 좀 회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회의를 잘 운영하세요.

○김병주 위원 잠깐만요. 병적기록에 대해서.....

○위원장 성일종 자, 다음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이것 잠깐만 얘기 좀 할게요.

○위원장 성일종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만해요.

○김병주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병적기록부를 말씀하시니까 그 관련 사실을 잠깐 얘기 할게요.

○위원장 성일종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잠깐 얘기하겠단니까요, 부연 설명을.

○위원장 성일종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주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잠깐만 시간 주세요.

○정청래 위원 말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성일종 아니, 제가 알아서 회의 진행합니다.

○김병주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이 다름을 보여 드릴 필요가 있어서 그렇지요.

○위원장 성일종 제가 진행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한기호 위원 지금 위원장님 인사청문회 하나요?

○김병주 위원 아니, 위원장님 얘기가 좀 잘못된 게 있으니까 내가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성일종 정청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호 위원 위원장 인사청문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방해하지 말고

진행하게 하세요.

○**김병주 위원** 한기호 위원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위원장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아닙니까?

○**한기호 위원** 아니, 저보고 가만있으라고 하지 말고 김병주 위원님이 좀 가만히 계세요! 진행 좀 하게.

○**위원장 성일종**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다 드렸잖아요.

○**김병주 위원** 만약에 저의 병적카드, 저의 군생활 레코드를 제공한다면 어떤 사항이 나오는지 아세요?

○**위원장 성일종** 정청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위원장님, 잠깐 시간을 줘 보세요.

○**한기호 위원** 아니, 그러면 나중에 장관 가지거든 제출하세요.

○**김병주 위원** 그러면 한기호 위원님이 군에서 저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제가 임종득 위원님을 어떻게 평가, 고점을 줬는지 다 나와요.

○**한기호 위원** 병적카드에는 안 나옵니다. 병적카드에 그게 왜 나와요? 알면서 그래! 그게 어디에 나와요, 병적카드에?

○**김병주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장군의 카드를 까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한기호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병적카드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임종득 위원** 무슨 평정표가 거기서 나와요? 거짓말하고 있어.

○**한기호 위원** 알면서 왜 거짓말해?

○**김병주 위원** 아니, 인사기록카드를 까는 것 아니에요?

○**한기호 위원** 병적카드에 그게 어디서 나와요?

○**김병주 위원** 병사들은 병적카드지만 장군들은 군의 레코드를 까면 다 나오는 거지요.

○**한기호 위원** 그게 어디서 나와요? 거짓말하고 있어, 지금. 군대생활 안 한 사람이 그러면 몰라도.

○**임종득 위원** 아니, 병적카드에 무슨 평정표가 나오니까? 말이 돼요?

○**김병주 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한기호 위원**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임종득 위원** 아니, 그걸 듣고 있는 국민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한기호 위원** 알면서 그러지 마세요.

○**김병주 위원** 장군 같으면 장군의 인사기록카드를 까면 다 나오잖아요,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 해당되는데.

○**한기호 위원** 병적카드에 그게 왜 나오니까? 알면서 왜 그래요?

○**김병주 위원** 그리고 병사들 병적카드 까게 돼 있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한기호 위원**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김병주 위원** 아무리 청문회라도 법과 규정대로 하는 거지.

○**한기호 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그렇지!

○**박선원 위원** 소리 그만 질러요!

○**한기호 위원** 안 나오는데 왜 거기 나온다고 그래?

○**김병주 위원** 장군의 기록카드를 보면 나오지요! 까 볼까요? 나오지.

○**한기호 위원** 거짓말하면 안 되지! 거기 기록카드에 뭐가 나와요, 나오긴!

○**위원장 성일종**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일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 건너편에 있는 한기호 위원께서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 그래서 역사를 생각해 봤습니다.

도둑이 경찰을 나무라는 것을 적반하장이라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귀 당 전신인 그런 여러 정당들에서 배출한 부끄러운 역사의 죄인 대통령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3·15 부정선거로 국민들에게 쫓겨났고 하와이로 망명 갔습니다. 국민의힘 귀 당 출신의 박정희,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그 독재자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국민의힘 귀 당 출신의, 귀 당의 전신인 민주정의당, 민정당 전두환·노태우는 내란·부패 혐의로 감옥 갔습니다.

국민의힘 전신, 당도 하도 많이 바뀌어서 이름도 알 수 없는 당에서 배출한 이명박·박근혜는 부정비리 혐의로 감옥 갔고 한 사람은 탄핵됐습니다.

국민의힘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칭송해 마지않았던 윤석열은 내란수괴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진정 역사 앞에 부끄러워 해야 할 사람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규백 의원에 대해서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는 그 발언은 취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이 나온 것은 역사적 의미로도 굉장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사 쿠데타를 국민들이 막아 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국방부장관을 맡는 것보다는 내란세력 완전 척결, 국방부 내의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하는 데는 오히려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이 저는 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국방 분야의 전문가로서 십수 년간 활동해 온 안규백 장관 내정자야말로 내란 척결을 하는 데 있어서 안성맞춤형인 A급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안규백 후보께서는 내란국조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나왔던 수많은 진실들을 제가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자료를 도움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실을 말한 우리 군인들 그리고 소극적 임무를 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선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왜 음성이 안 나오지요?

○**위원장 성일종** 원래 소리는 안 나지 않습니까?

○**정청래 위원** 소리 원래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위원장 성일종** 예, 소리는 안 합니다.

○정청래 위원 저희 법사위에서는 다 소리 했는데.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거기 가서 얘기하십시오.

○정청래 위원 저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거기서 했던 것은 여기서 강요하지 마십시오. 여기랑 거기랑 다릅니다.

○정청래 위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위원장. 제가 위원장 해 봐서 압니다.

저 장면은 뭐냐 하면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라는 조성현 대령의 진술 과정입니다. 저런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내란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또 광종근 특전사령관은 여러 가지 진실을 말함으로써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장관후보자, 이런 군인들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려서 오히려 상을 줄 사람은 상을 주고 또 선처를 해야 될 사람은 선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제가 장관이 된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 2024년 10월 11일 국방부 국정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인기가 북한에 날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김용현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알다시피 드론사 장교의 증언에 의하면 ‘무인기 침투, V의 지시였다. 국방부·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빼라도 살포하고 일부러 무인기를 노출시켜 북한의 불안감을 조성해야 한다’ 이것 외환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란특검에서 외환죄도 수사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당원이었던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지금 감옥에 갇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연루자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내란 동조 세력이 아니라 그냥 내란 정당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음모 혐의가 있다 하여 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고 그리고 정당이 해산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헌정당심판, 정당해산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란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해체되어야 된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고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의 소관이지만 같은 국무위원으로서 그때 가면 입장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장관후보자로서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제한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 우리 안규백 후보자께서는 내란국조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내란은 없고 아프지 않은 종식은 결코 불가능하다. 마침표를 찍지 않고서는 다음 문장을 쓸 수 없다.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위해 반드시 내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소신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어떤 이유로든지 군을 정치에 동원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

도 안 되고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정청래 위원 우리 헌법은 국무총리도 국무위원도 현역 군인은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이 되시면 보란 듯이 장관직을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정청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 위원 후보자님, 장관후보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감사합니다.

○황희 위원 보니까 안규백 후보자 요구 자료를 많이 내셨어요. 총 258건 중에 224건, 답변률이 86.8%예요, 서면질의는 거의 99.7%. 윤석열 정부 때 국무위원들 저희가 청문회를 해 봤지만 어마어마하게, 그때는 진짜 아예 안 냈거든요. 도저히 청문위원들이 청문회를 하지 못할 정도로 답변 제출을 안 했는데 아마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 그때 일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군 시스템이, 지금 2025년입니다. 현역 출신이라든가 장군 출신이 국방부장관이 아니면 우리 국방 시스템 무너지는 체계입니까, 지금 6·25 때도 아니고?

20대 때 현역 3년 경험하고 지금 후보자처럼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14년 국방위 경험을 깡그리 무시하는 건가요? 국회의원 스스로가 상임위 경험에 대해서 전혀 인정 안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계엄이 있었어요, 계엄. 대통령이 탄핵됐고 5년 임기 동안 3년만 마치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군의 명예는 엄청나게 실추돼 있고 더군다나 우리 군의 복지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인 출신, 그것도 군대를 안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민간인 출신 전문가가 국방부장관이 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겁니다.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독일 이런 데 보면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이 많아요. 그 나라는 뭐 그걸 몰랐겠습니까?

요즘에 국방이라는 것은 군사정책을 넘어서 군과 민간과의 관계도 있는 거고 외교 문제도 있는 거고 사회 전반적인 이런 시각이,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한데 이럴 때는 후보자 같은 그런 경험 있는 정치인 출신 그것도 국방위 14년이나 한 이런 분들이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후보자께서 보면 군령을 관장하는 지휘관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합참의장도 있고 3군 총장도 있고 그런데 국방부장관은 군정과 군령을 모두 지휘하는데, 보면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외교부장관이 있고 국방부장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황희 위원 안보실은 경제의 안보, 이제 외교부의 경제가 공식적으로 업역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교부장관이 경제안보를 담당하고 국방부장관이 국방안보 이걸 담당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제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도 되셨으니까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의 정치외교적 역량,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 국방부에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외교부장관이 외교현장에서 경제와 외교를 다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은 하지만. 실제 국방부장관도 이제는 대외관계에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절반 정도는 외교부장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 대통령령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렇습니다.

○**황희 위원** 이제 국방부장관이 되시면 실제로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장관은 군사정책을 넘어서 여러 가지 외교, 복잡한 외교현안, 사회 전반적 시각 이런 걸 다 포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군정과 군령을 관장하는 사람임이 맞습니다.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각 사령관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참모가 들어가라는 것은 장관을 보좌해서 군정과 군령을 장관이 판단, 결심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군이 볼 수 없는 민의 시각에서 더 높고 더 크게 보도록 하고 안보태세에 빈틈없이 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황희 위원** 오늘 저는 민간인 국방부장관으로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줄곧 이렇게 질의를 이어 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방부가 해결하지 못한 군내 복지 문제라든가 또 대외관계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방부에 어떻게 보면 바람막이가 돼 주고 오히려 우리 군의 명예를 더 높여 주고 군과 민간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고 더 신뢰가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국방부장관으로서의 역할들에 대해서 오늘 계속 질의할 예정입니다.

보면 지금 세계정세가 참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정책으로 자유무역체제는 이미 글로벌 규칙이 좀 깨진 상태고요. 또 환경적 가치가 무역 장벽화되고 있고 한정된 자원이 무기화되는 경제안보 시대입니다. 기술이 또 너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규칙과 질서들이 채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 각자도생의 시대에서 다양한 연대와 패권구도가 새롭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의존에서 좀 벗어나서 스스로 방위력을 증강해야 되는 당위성에 직면하고 있는데 유럽 스스로 방위력을 갖추려면 한 10년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얘기도 계속 나오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후보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끝나면 그다음 질의로 계속 다음에 이어 가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한미가 합의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주기적으로 평가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윤상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고 추미애 위원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께서 ‘내란정당이다. 내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물론 언론에서는 내란이다 몰고 있습니다마는 내란에 대한 법적 평가는 진행 중입니다.

사실 형법 87조나 91조나 대법원 1997년 판례를 보면 국헌문란의 폭동이라는 것과 그리고 국가기관을 사실상 전복시키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 내란의 법적 규정인데 대법원 판례 보면 두 가지 경우를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더라고요. 첫째 국가기관을 영구적으로 제도적으로 폐지할 때, 또 하나는 사실상 상당 기간 국가기관의 권능·기능을 행사를 못 하게 할 때.

그래서 제가 많은 형법학자, 헌법학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란목적성, 고의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것은 법적인 평가가 아직 안 끝났다. 그래서 내란이다 뭐다 이런 말씀하실 때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안규백 장관후보자님 저도 참 존경합니다. 전혀 도덕적 하자가 없는데 자꾸 나오는 게 병적 관련인데 이 국방부장관 하시면서……

○**박선원 위원** 질의하지 마시고 진행발언하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보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윤상현 위원** 여기서 병적기록부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그것 참……

○**박선원 위원** 잘 진행하세요.

○**윤상현 위원** 우리가 비공개라도 열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기병사가 14개월인데 8개월 넘겨서 22개월 했다면 ‘야, 그게 병적기록부에 영창 갔다 왔다’ 이런 얘기가 자꾸 돌면 국방부장관으로서 앞으로 군통수하는 데 여러, 권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제가 이 학적기록부에 보면 제대를 해서 6개월 학교를 다닌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산입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3학년 1학기를 85년에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록이 병역으로 잘못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3학년 1학기를 85년에 제가 이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 위원** 위원장님, 저도 간단하게 좀 얘기할게요.

○**위원장 성일종** 그러시지요.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황희 위원님께도 의사진행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희 위원** 윤상현 위원님 ‘내란에 대해서 아직 법정에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저도 정치를 오래했기 때문에, 법적인 해석이 그렇다고 하는데 분명히 법정에서도 이게 정치학적 개념이 들어갈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고요, 시민이 두 가지 권력을 선택합니다. 하나는 의회 권력이고 하나는 대통령 권력입니다. 의회 권력은 결정을 하라는 권력이고요, 대통령 권력은 집행을 하라는 권력입니다. 이렇게 거버넌스가 정치학적으로 나뉘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권력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시민이 선택한 두 권력 중에 하나가 다른 권력을 침탈하고 누르고 배제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내란입니다. 아마 이게 법정에서 나올 겁니다, 이 정치학 개념이.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우선 축하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감사합니다.

○추미애 위원 장관 후보자께서는, 5·16 이전에는 이미 문민 출신 국방부장관이 네 분이나 있었던 거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추미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섯 번째 문민장관이신 거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내란을 극복하고 문민장관은 참으로 의미가 깊다 생각합니다. 어떤 도전이 있더라도 잘 극복해 내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5·16을 일으킨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사실은 문민 장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정희의 길을 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윤석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희는 만주군 육군장교 출신이고 남조선 노동당 군사총책이었지요? 사실은 그것이 들통이 나서 소장으로 진급했을 때 미 측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고 그래서 사령관으로 승진이 됐다가 부사령관으로 강등되고 그런 모멸감 때문에 또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재임 시절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그 핑계로 유신 독재를 일으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께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아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검찰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을 했던 윤석열은 이 나라의 국가 민주공화정을 전복하려 했던 것이고 또 외환을 일으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외환을 일으키는 수단 중에 무인기 3종 세트가 있는데요. 아까 후보자께서는 모두 말씀에서 ‘군이 권력의 사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민 통제를 공고히 하겠다’ 군 재건에 대한 각오를 이렇게 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무인기 3종 세트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장관 취임하시면 바로 내부 감찰을 해 보시고 지금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군 당국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의 무인기 3종 세트는 이렇습니다. 개헌 명분을 찾기 위해서 북한을 도발하면서 불법적인 작전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의 무인기 3종 세트 첫 번째는 소위 평양 무인기로 불리는 소형 정찰드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데요. 24년 1월에 개발에 들어간 소형 자폭드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23년부터 준비는 했지만 불발이 된 것으로 보이는 노상원의 해론 무인정찰기 이렇게 3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우선 평양 무인기 소형 정찰드론에 대해서는 23년 1월 4일 윤석열이 주재를 해서 용산에서 대통령실 무인기 회의가 있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시 윤석열이 주재했던 무인기 회의는 23년 1월 4일 9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2층도 집무실이 있지만 5층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당시 참석자는 윤석열과 이종섭 국방부장관, 김태호 1차장, 김용현 경호처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은혜 대변인, 엄동환 방사청장, 국과연에서 간 실무자 2인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23년 1월 4일 9시에 용산 5층 대통령집무실에서 무인기 대책 회의를 주재했던 윤석열, 직접 주재를 했는데요. 제보에 따르면 그날 윤석열은 유독 화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이종섭 장관은 속된 말로 많이 깨졌다고 하고 회의 도중에 엄동환 방사청장 등은 쫓겨났다고 합니다. 1시간 정도의 회의는 주로 김용현과 윤석열이 직접 주도를 했고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았다고 합니다.

PPT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윤석열의 주요 발언을 소개하겠습니다.

무척 화를 내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건 방호 체계가 아니야. 이런 것은 시간 낭비야. 북이 5대를 보내면 우리는 20대 정도는 대응하는 게 필요해. 드론 요격 하는 것 가능하냐?’ 이렇게 성질을 내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소프트 테러다’ 이렇게 전문용어를 쓰면서 ‘구매보다 연구개발비로 투입이 필요해’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마도 1000대 만들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꺼번에 1000대 만들지 마, 100대 정도 먼저 만들어야지. 시험도 하고 순차적으로 만들어 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프트 타깃 테러가 정확한 용어이고요. 소프트 테러라는 건 조금 잘못된 용어인 것입니다. 소프트 타깃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타깃을 간접적으로 정해서 대중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불특정 다수를 타격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일으키는 적의 테러인데요. 하드 타깃 테러와는 좀 다른, 구분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더욱더 화를 내면서 ‘떨어뜨려도 보고 폭파시켜 봐. 시험도 계속하고 다양하게 해 봐’ 이렇게 직접 지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폭 드론이라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그러면서 ‘드론 킬러 드론이라고 하자’라고 합니다.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론 킬러’는 드론을 잡는다는 뜻이고 ‘킬러 드론’은 다양한 무장한 드론을 의미하는 것인데 ‘드론 킬러 드론’이라는 신조어는 그날 윤석열이 만들어 내고 모두 충성의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평양 무인기 드론이 윤석열의 지시라는 것도 이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는 상황을 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드론에 대해서 지시하고 보고받고 쉽게 말하면 작전 지휘도 직접 했다. 12·3 내란 계엄 날 각 사령관한테 재촉하는 전화를 여러 차례 했듯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론에 대해……

1분만 더 주시면 정리하도록……

○위원장 성일중 아닙니다. 시간이 주질의가 7분이기 때문에 오후에는 좀 더 여유가 있는데 다른 분 다 돌아가야 됩니다.

○추미애 위원 이거 좀 마무리발언을……

○위원장 성일종 아니,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도 이 방송에 다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추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쪽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좀 정리해 주시지요.

○추미애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작전을 지휘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드론을 침투시킨 것도 윤석열이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박수를 친 것 정도가 아니라 그 향로, 또 어디를 타격하라. 특히 김정은의 저택으로 알려진 곳도 윤석열이 지시했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회의가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관련자들을 다 배제하고 직접 소프트 타깃 테러를 지시하고 공포감을 일으키고 대응하라. 대수를 정하고, 그러니까 제작 지시와 사후 보고, 드론의 운용까지도 직접 지휘했다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23년 1월 4일 외환 혐의의 시발점이 된 윤석열의 무인기 회의에서부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고……

○위원장 성일종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추미애 위원 아까 직접 회의에 참석했던 관련자들을 수사해야 될 것이고 윤석열의 구체적 지시사항, 향후 평양 무인기 침투까지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특검의 소환 조사를 통해 낱알이 밝혀져야 할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부 감찰도 해 주시고 수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시간 내에 끝내야 됩니다. 또 위원님들께 공평하게 여러 가지 방송의 기회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7분 이내에 가능하면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진정한 청문회장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바라고 최소한의 동료 의식이라든지 상대방에 대한 폼페이 발언은 좀 자제해 줬으면 하는 바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후보자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감사합니다.

○강대식 위원 안 후보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중국이 우리 서해에서의 어떤 군사 활동이라든지 방공식별구역 무단 침범이라든지 또한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을 한 다든지 또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우리 군 내부 인사들을 포섭해서 한미연합훈련들 이런 군사 기밀을 도둑질해 간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지금 매우 확대되고 강화되고 있는 거 후보자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알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렇다면 중국이 국내외에서 이렇게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런 행위를 계속 지속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계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최근 약 10여 년 전부터 중국은 KADIZ, JADIZ, CADIZ를 왕래하면서 우리의 군사력을 시험평가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될 때는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작전을 해서 저희 영해·영공을 침범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와서는 그 횡수가 더 빈번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국제규범을 준수하되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런 나쁜 행위들이 이렇게 드러났지만 중국 정부로부터 사과를 한다든지 재발 방지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전혀 들어 본 적 후보자께서도 없고 저도 없습니다. 들어 본 적 없으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 정도가 지나칠 때는 대사를 초치해서, 저희 정부에서 그건 진보, 보수를 넘어서 조치를 해서 항의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본 위원은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서 만약에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어떻게 대처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계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 혹시 한번 들어 보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강대식 위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있고 또한 대통령실하고 미 대사관 인근 토지까지 중국인들이 매입을 해서 한미의 내밀한 곳까지 염탐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거기에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국무위원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관련 법령이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미비한 부분을 포함해서 일정 지역 이상은 외국인들의 땅 매입이나 구매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많은 국민들이 중국의 간첩활동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건 단호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그리고 중국이 한반도 주변 안보 정세, 질서 재편에 중대한 위협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하고 후보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와는 국익 중심의 실용국방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렇습니다.

○**강대식 위원** 후보자가 생각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국방 협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전통적으로 우리 외교 정책은 1 동맹 3 친선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멀리함으로써 북한과의 여러 가지 친밀도가 또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의 북방외교정책 시장을 더 확장·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도 일정 부분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는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협력이라 하는 것은 상호주의가 작용하지 않습니까. 나한테도 이득이 있

어야 되고 상대방도 이득이 있어야 되고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질 때 신뢰가 쌓이고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거라든지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거라든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라든지 이게 전부 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과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작용할까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것은 상호신뢰가 먼저 바탕이 돼야 되고 낮은 단계부터 더 높은 단계로까지의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중국이란 나라를 멀리하거나 또 어떤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이럴 때는 더 친밀한 북중러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도 중국과도 일정 부분 그런 긴밀한 협조관계는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지난 11일에 서울에서 22차 한미일 합참의장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 합참의장은 북한과 중국의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을 우려했지만 공동 보도문에서는 중국 견제에 대한 내용은 짝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봤을 때 저는 예견된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걸으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외치지만 실제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한미동맹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포괄적 안보동맹이 맺어집니다. 어떤 경우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한미동맹은 동맹을 뛰어넘는 혈맹 관계로 유지·승화·발전돼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북방외교의 시장 개척 또 경제적인 측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를 또 해 볼 점도 저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후보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감사합니다.

○김병주 위원 안규백 장관후보자님은 17년 동안 국방위를 지켜서 누구보다도 국방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간 관점에서 군을 개혁하고 내란을 종식시키는 데 앞장서는 장관으로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특히 장관이 되면 첫 번째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내란 종식을 시키고 군이 거듭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동의합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지금 군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됐어요, 내란에 대해서. 물론 특검에서도 하지만 그것은 병산의 일각이고 군 자체 조사를 해서 형사처벌로 갈 것은 내란으로 보내고 징계 사항일 수도 있고 구두경고 하는 요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진짜 천인공노할 일이 저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전쟁을 유발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이 문제가 지금 내란에서도 조사하고 있는데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슬라이드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드론사령부에서 무인기를 지금까지 최소 세 차례, 일곱 대를 보냈고 이것은 주로 백령도에 있는 부대가 보낸 거고요. 1차 때는 연천에 있는 부대도 두 대를 보냈다고 제보가 있었어요. 이걸 더블 체크를 하느라고 제가 일곱 개 속에는 포함 안 시켰는데 이것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천에서 1차 10월 3일은 두 대를 보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동해에 있는 부대도 해상에서 북쪽으로 보냈다는 제보들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군 자체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봐 주시지요.

평양과 남포에 보내서 전단을 뿌렸는데 저것은 북한에서 발표했던 전단통과 전단이에요.

다음 장 보시지요.

저것은 우리 드론사에서 자체 제작을 해서 개조를 한 겁니다. 무인기에 감시카메라를 때 내고 저거를 함으로써 무게를 맞춘 거지요. 전단통에 한 600장 정도 전단이 들어갔고.

(전단통을 들어 보이며)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것은 저것을 사전에 훈련을 많이 했어요, 개조를 하고 난 다음에 8월경, 9월경에 전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게 실제 전단통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드론사에서 3D 프린트기로 만든 전단통이고. 이 정도 하고 이 안에 전단을, 이걸 모형 만든 거예요. 전단을 만들어서 600장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무인기 있으면 배면에다 이걸 결합을 하고 여기에 서보(servo)라는 장치가 있는데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평양 15호 관저 가서 이것이 명령에 의해서 릴리즈가 되는 겁니다. 풀리면 이것이 떨어지면서 전단통과 전단이 뿌려지는 겁니다, 실제. 이것을 2월 달부터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6월 달에 3D 프린트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 만들면서 계속 시험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불이 났던 거 있잖아요. 연천에서 컨테이너 불 났던 것도 이러한 것들을 은폐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제보들을 했는데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아마 연천 드론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103대대에서 했기 때문에 그 주변 야산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거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사실 떨어지면서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철제로 되면은 사람이 맞으면 어떡할까 했는데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여기 3D 프린트도, 선이 착 난 걸 봐서 3D 프린트고요. 제가 드론사에 있는 요원한테 확인을 했더니 일치합니다, 그때 드론사에서 만든 것과 같이. 이런 것들은 증거가 되는 거지요.

다음 한번 보시지요.

그리고 이 부대들은 드론사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여러 부대가 관련됐어요. 그것은 격려금을 확인을 해 봤더니, 이건 국방부에서 제시된 자료입니다. 8일 날 드론을 북한에 보내면 오인사격을 할 수 있잖아요. 북한은 월북하는 드론은 격추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북한 무인기일 수 있기 때문에 격추시키는데 그러면 여러 사령부가 알아야 되는데 그때 격려금이 집행된 부대들이 다 관련 부대들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언론에 공개한 것이 연합사, 공군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합참 작전본부, 드론작전사령부예요. 지상작전사나 공작사는 다 알아야 되고 연합사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합참 작전본부도?

어저께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전체 리스트를 분석해 봤더니 심리전단이 10월 26일 날 있었고 11월 13일 이후에는 합참 정보본부도 있어요. 11월 13일 날 남포로 갈 때는 군사기지를 계속 경유하게 했는데 그런 걸 분석하고 15호 관저, 평양에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드론사는 모릅니다. 최소한 합참 정보본부나 또는 대통령실 안보실이나 방첩사, 국정원 정도인데 이걸로 봐서는 정보본부에서, 작전본부에서 다 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봐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그 이후에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부대 명칭을 바꿨어요. 12·3 내란 이후 B중대 또는 정찰중대라고 하던 것을 1월 달에 그 드론 날린 부대를 1중대라고 했고 거기에 있는 대대장, 정보과장, 주임원사, 중대장을 다 해병대나 정보사로 보냈습니다. 이거는 국방부가 관여돼야 다른 해군이나 해병대, 정보사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도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내에 있는 반장들도 증거를 인멸하는 거라든가 하기 위해서 지역을 격리했고 GCS를 덮어쓰기를 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조직적으로 지금 은폐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행스러운 것은 국방부차관이 늦더라도 이런 것 은폐하고 축소하고 제거하지 말라고 어제 지시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군이 전방위적으로 은폐하고 또는 수사를 방해하고 또는 여러 가지 이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것으로 봐서는 내란의 잔존 세력들이 국방부, 합참, 안보실, 아주 곳곳에 박혀 있다고 인식됩니다.

○위원장 성일종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이러한 사항을 국방부장관후보자께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가시면서, 이것은 내란특검에서는 아주 병산의 일각밖에 안 될 겁니다. 자체 조사팀을 해서 발본색원해야 된다, 핀셋으로 뽑듯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위원님,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관계도 파악해 보고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잠깐만요, 이것 잠깐 보여 주세요.

(전단통을 들어 보이며)

플라스틱입니다. 아주……

○위원장 성일종 아니, 그것은 회의를 진행하는 데 방해를 하는 거잖아요.

○김병주 위원 아니, 방해가 아니라 장관후보자가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위원장 성일종 아니, 그렇게 텔레비전을 받고 싶으세요?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안규백 후보자님, 국방부장관으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감사합니다.

○황명선 위원 후보자께서는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방위 간사와 또 국방위원장을 지낸 분으로 군과 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도 높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국회의원 5선 하시는 동안 대부분 국방위에서만 활동하신 이유가 뭐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저는 평소에 제1 덕목이 안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위스가 내륙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있는 이유는 세계 어느 나라나 국가의 제1 덕목이 안보라고 여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경험과 학습과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서 국방위에서 5선 동안 내내 활동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황명선 위원 5·16 군사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첫 민간인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의 문민통제와 국방개혁의 상징이 충분히 될 만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민 국방부장관으로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계엄으로 인해서 흐트러진 군심을 모으고 그에 따른 군의 사기 진작을 시키는 일이 저는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효율적인 국방혁신 또 국방경영 또 군 구조 개편,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역점을 두고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방경영은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둔중하고 또 비효율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낭비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을 사계의 권위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진단을 한번 받아 볼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고강도 국방혁신은 진영과 논리를 떠나서 실사구시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어떤 효과적인 산물을 좀 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군 구조 개편은 사실 국방개혁 2020에 보면 대통령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이걸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국방개혁 2020에 계속 실천적으로 이어져 온 겁니다, 예전의 68만 병력을 50만으로 줄이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현재는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군 구조 개편을 하면 부대구조·병력구조·전력구조 이 삼위일체가 세트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37년, 40년 되면 병력 자원이 37만 명으로 급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3종이, 부대구조·병력구조·전력구조 이 3종 세트가 한 삼위일체로 가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 지금 세심히 바라보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국방부장관은 5년 단위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국방개혁 2.0을 발표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4.0을 발표했었는데 군사정권 이후 64년 만에 문민의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12·3 내란 사태로 상처를 입고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군을 이끌면서 앞으로 새로운 국방개혁, 앞서 말씀을 큰 틀 속에서 세 가지 주셨는데요. 좀 더 우리 국방과 가장 중요한 남북한의 군사력 차이까지 한번 설명하시면서 향후 대통령실과 그리고 국방부와의 관계 속에서 국방개혁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나라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남북 간의 차이를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의 전체 실질 GDP보다 우리의 국방비가 1.4배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방은 상당히 견고하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손자병법에 보면 손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병자(兵者),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국지대사(國之大事), 국가의 중대한 문제고, 사생지(死生之地), 삶과 죽음의 경계다. 그래서 이 나라의 존망지추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불찰야(不可不察也), 소홀히 다루면 안 되고 살피고 살피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따라서 하나하나 여러 가지 정교하게 접근해 갈 생각을 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함께 팀워크를 이뤄서 시스템 체제로 손실이 없도록 촘촘히 살펴보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아주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해병대 준 4군 체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약을 했었고. 그런데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서 해병대 준 4군 체제에 대해서 공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국정기획위원회하고 국방부가 보고하는 내용 보면 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해병대 준 4군 체제의 독립이 왜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해병대는 상륙기동, 서북도서 방어를 주임무로 하고 있는데 신속기동 대응부대로 준 4군 체제가 되면 그 미션이 또 주어집니다. 해병대에서 아마 원하는 것은 해병대 포항 1사단이, 지금 평시작전통제권이 2작사 예하에 속해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육군에 속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육군에 속해 있습니다. 작전권을 해병대에다 주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준 4군 체제라는 것은 해군이 해병대에 속해 있는데 해군이 해병대에 준하는 여러 가지 전략자산이랄지 여러 가지 체계, 구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가 4군 체제에 가장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황명선 위원** 군의 전략……

육성으로 할게요.

○**위원장 성일종** 정리하시지요.

○**황명선 위원** 군 전략기동부대로서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 해병대를 더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특히 동북아의 불안정한 내용과 더불어서 북한의 강력한 도발도 예측이 돼서 전략기동부대로서 해병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는 국방부의 태도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보시고요. 독립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독립이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 역할을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좀 디테일하게 강력하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해병대는 세계 최강의 해병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보다 더 많이 해병대의 전력구조가 강화돼 있고 KV랄지 또 KV-2까지도 전력화될 예정이고요. K-9, 스파이크, 여러 가지 이런 전략자산들이 앞으로 더 많이 충원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오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황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후보자님, 저는 다른 장관후보자에 비해서 국방부장관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비교적 저희가 받아들일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일단.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고맙습니다.

○**강선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 후보자께서 일곱 번의 인사청문회를 하셨습니다, 국방위원으로. 그래서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속기록을 좀 분석해 보니까 최근 20대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는 인사청문회의 취지와 목적을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책임성을 검증하기 때문에 장관후보자로서는 국민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후보자보다 인사청문회가 개인 국회의원 1명이 후보자에게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는 취지를 이해하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덕성 검증 중에서 재산 증식 변동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2025년 인사청문요청안 재산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가족 전체의 금융자산 변동 과정을 분석해 왔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후보자와 그다음에 배우자, 두 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 자료가 좀 안 보이실 텐데요.

후보자 가족 전체 재산은 현재 이번에 자료를 제출한 기준으로 보면 약 72억 원 정도입니다. 저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개인이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정생활 17년 동안 약 4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시면 이 과정에서 후보자께서는 14개의 예금상품, 10억의 유가증권, 배우자는 41개 예금상품에 가입해서 재산을 증식해 오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6월 27일 이번에 국방부장관후보자로써 한 재산신고 내역과 24년 말에 재산 신고한 내역에 6개월 만에 본인 예금이 약 3억 원, 유가증권은 3.4억 원으로 약 6.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배우자께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이번에는 확인을 못 했지만 어쨌든 6개월 만에 예금이 1억 3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과연 예금과 채권만으로 자산을 증식했을까라는 강한 의혹과 함께 상식선에서 제가 도저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7년 동안 국회의원 하시면서 세비 22억과 후보자 사모님의 교사 봉급이 10억 인데, 보면 이제명 정부 초대 장관후보자 평균 41억인데요. 그 돈을 다 모아도 32억이 됩니다, 세비 17년간 모은 것과 교사 봉급. 그런데 72억이 되셨거든요. 그 사이에 자녀 세 분을 교육시키고 생활하시는 데 한 푼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 32억인데 72억이 됐다면 그 동안의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는 어떻게 모아진 것인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게 도덕적인 흠결이라는 것이……. 범법행위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의 보편적 자산 증식 수준에서 공직자로서 교사로서 어떻게 이런 수익이 났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명하실 기회가 있다면 해명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국방위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여당 위원님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제보가 들어오는데 그동안 국방위에서 활동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장기판에서 훈수를 두셨지만 이제는 장관이 되시면 직접적으로 장기판에서 장기를 두는 플레이어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난주까지 업무보고를 많이 받으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군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인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해외파견 무관의 20% 이상을 진급시키라고 지시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해외파병 인원에 대해서 몇 %, 몇 %를 진급시키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앞으로 K-방산이 날개를 달고 향후 10년 뒤에는 우리가 더 연구개발을 해서 고가의 무기를 팔아야 되니 좋은 자원을, 대개 보면 해외파병 무관들은 다음에 리타이어할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데 미래에 여망이 있는 사람을 많이 보내서 그 자원을 가지고 더 활용을 하고 거기서 이제는 진급자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 20%, 30% 그것은 상식 이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20%라고 언급은 안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느 자원이 어떻게 될 줄 알고 20%를 얘기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이 저희한테 제보가 왔냐 하면 사실 국방무관을 나가려면 국방무관 나가기 전에 그 해당 국에서 교육도 받고 또 자녀들을 해외에서 교육시킨다는 것 때문에 약간 국방무관에 대해서는 특혜성 보직이라는 군인들의 인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저한테 제보하냐 하면 후보자께서 국방위에서 해외출장 시에 무관들의 도움

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아니냐, 아니면 현재 해외파견 무관 중에 후보자가 진급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오해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안규백아카데미, 혹시 안규백스쿨이라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과거에 국방위에 계시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인사 청탁을 받아서 특정한 사람들을 진급시켰다는 소리가 좀 들립니다, 사실 인지 아닌지는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고 균형된 인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특정한 보직이라든지 특정한 인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그것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인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아까 황희 위원님은 군령권 보좌를 3군 총장이 한단는데 사실 3군 총장은 군령권 행사 못 하고 군정권만 행사합니다. 3군 총장이 각 군에서 매년 두 번의 평정과 그다음에 그 사람이 복무한 걸 가지고 공정하게 올라왔을 때 장군 인사가 아니면 각 영관장교들이나 그 이하 장교들에 대한 진급은 사실은 장관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원칙만 명확하게 정해서 해 주시는 게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좀 공정하게 해 주실 것 아닙니까, 장관이 되시면?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강선영 위원님이 군생활을 하셨고 또 많은 그런 인사에 관해서도 저한테 지침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고 또 불편부당하게 치우치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에 예금이 3억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 투자전문가한테 맡겨서 그분이 상품을 골라 오면 제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운 좋게 증시가 활황이 돼서 최근 6개월 동안에 그 정도의 예금 증액이 올라왔다. 저는 부동산이 일절 없습니다. 일절 없고 채권과 예금과 펀드 이것만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감사하게도 전액 다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졸업했거나 지금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학비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이것도 자료제출할까요?

○강선영 위원 예, 제출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박선원 위원 장관후보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국방위의 그야말로 15년, 17년 역사의 산증인이십니다. 인격은 물론이고 경험, 역량 모두 충분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합참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이라고 하지요. 이곳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고 상당

히 익숙한 공간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MCRC를 비롯해서 우리 여러 공군 작전부대 지휘소도 많이 방문하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박선원 위원 국정감사는 국방부, 방사청 상대로 해서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글썽요, 제가 지금 했수로 18년째 국방위에서 16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 지금은 아니지요. 죄송합니다. 항상 이 자리에만 있어 가지고 제가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한 사오십 번 했지 않겠습니까?

○박선원 위원 국방부 보고도 수차례 받았을 거고 합참 보고도 수없이 많이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런 속에서 작전계획, 군사작전의 기본 개념은 물론이고 전방의 상황 그리고 육해공 각 군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봉사 하고 있는지도 잘 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저는 군인만큼 충직하고 정직하고 애국심이 강한 그런 집단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국방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또 현재 재물관리를 비롯해서 전시 비축물자 등을 비롯한 우리의 전쟁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전쟁 지휘능력 자신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전쟁 지휘능력은 작전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합참의장과 함께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같이 의논해서 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아직 접견 안 하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아직 안 했습니다.

○박선원 위원 곧 하셔야 되겠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장관이 된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선원 위원 주한미군이 더 늘 수도 있다라고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불침 항공모함으로 봐야 된다. 미사일로 뽁뽁하게 등을 쫓은 고슴도치처럼 전력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입장도 있고요, 미국 내에서, ‘아니다.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전진 배치돼서 중국을 억제하기에 불리하니까 오히려 꺾이나 뒤로 빼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에 대해서 줄이자 늘리자 많이 있습니다만 엇그제 미 하원에서 다시 한번 국방수권법상 2만 8500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한미 관계는 어느 상황이 오더라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역내 평화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다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주한미군이 동북아시아 전체에 대한 발진기지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우리 정부의 오래된 기본 입장도 잘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전략적 유연성은 미측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요청한 사항입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서로 간에 긴밀하게 협의될 사항이지 어느 일방이 주장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거 일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격 사건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의 외교·군사적 수단을 강구했고 그 결과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공식 서한을 통한 사과, 유감 표명을 받아 낸 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전 정권의 안보 핵심 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안보실장 국방장관 그리고 전 국정원장을 했던 분들까지 다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다시 뒤집어엮어서 월북임에도 불구하고 월북이 아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유도해서 이분들을 지금 구속까지 한, 당하신 분도 계시는데 법정에서 3년 동안 고생하고 계신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원 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뒷 분이 적든, 조금 이따 제가 제출도 할 수 있는데요.

2022년 5월 24일 자입니다. 제20차 NSC 실무조정회의의 자료가 있는데 그중에 정보공개소송 대응 방향이라고 하는 자료 그리고 22년 5월 26일 자 제26차 NSC 상임위원회, 아까는 실무조정위원회였고요. 상임위원회 회의 자료 중에 정보공개소송 대응 방향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5월 30일 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향후 조치 참고 보고자료 그리고 22년 6월 13일 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국가안보실 협의 결과, 이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작성했는데요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서해 공무원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수호하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정부, 국가의 본연의 임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왜곡돼서 무슨 월북 사건을 가짜로 정보를 조작했느니 말았느니 해서 전 정권의 안보 지휘부를 온통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의 자료는 군사기밀이 아닙니다.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꼭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장관이 되시면 이러한 과거의 불미스럽고 불행했던 우리 군 당국자들의 고통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예 문서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재판부에 다 가 있어요. 검찰에도 가 있고 다 가 있는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되시면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문서, 여러 가지 더 많습시다만 아주 기본 문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꼭 공개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NSC 또 김태효 등이 국방부의 SI 첩보를 왜곡해서 남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왜곡해 가지고 마치 문재인 정권에서 뭔가 잘못된 것처럼 3년째 재판에서 끌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원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이 서해 공무원 사건은 지금 재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어느 부분까지 공개가 가능하고 제출이 가능한지를 법무적 판단을 받고 또 지금 재판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다음은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64년 만의 문민장관으로서 기대감이 큼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감사합니다.

○윤상현 위원 후보자님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우리의 주적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DJ 정부 이후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 이것은 명확히 나와 있고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윤상현 위원 우리의 실질적인 즉각적인 위협이지요.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냐 이것에 대한 대답은?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토·영해·영공을 위협하는 것은 다 우리의 적 아니겠습니까?

○윤상현 위원 북한은 우리에게 실질적 군사적 위협이면서도 통일의 파트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통일의 파트너로서 특수한, 잠정적 특수관계에 있지요.

천안함 폭침, 2010년이지요, 3월 26일. 천안함 폭침의 책임 주체는 누구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천안함 폭침의 책임 주체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예, 북한군이지요.

그러면 천안함 폭침이 당시 MB 정부의 강경책 때문에 원인이 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후보자님이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저는 북한을 항상 두 얼굴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에 항상 호시탐탐 우리 남한을 노렸기 때문에 그런 일관된 신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진보·보수 정권을 뛰어넘어서 북한이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퀘스천마크로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동족으로서의 두 눈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

나 생각합니다.

○**윤상현 위원** 후보자님, 그러니까 당시 MB 정부의 강경책 때문에 천안함 폭침 북한이 단행했다.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것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꼭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위원** 사실 MB 정부의 강경책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강경책이지요.

예를 들어서 MB 정부가 태동한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 2008년 7월 달인가 박왕자 씨 피살사건이, 금강산 여행객이지요. 그것을 보면 의도된 계획된 사살이었습니다, 의도된 계획된 사살.

그래서 MB 정부가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 박왕자 씨 피살사건에 대해서 책임 규명해라, 진상 규명해라 또 재발 방지대책 만들어라. 책임자 처벌, 당연한 요구였거든요. 정상적인 정책을 했거든요. 원칙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MB 정부는 정상적으로 일관된 원칙적인 정책을 했는데 그게 꼭 대북 강경책인 양해서, 이런 답변 하는 것 보고 제가 놀라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전작권 전환 어느 정도 기간을 보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조금 전에 말씀……

○**윤상현 위원** 5년 내로 하신다는 거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전작권 전환은 먼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을 삼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목표로 하는 거지요? 그게 어떤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조건적 개념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북핵 미사일 대응능력 확보……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것은 조건2이고요.

○**윤상현 위원** 연합방위태세능력, 거기에 더해 안보환경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런 조건에 기반한, 만약에 전작권 전환을 받으면 우리의 군사비가 어느 정도 증폭되리라고 보십니까, 후보자님?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연구 결과에 따라서 약간 상이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마는 21조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C4I나 예를 들어서 정찰감시 등등등 해서 21조, 27조다. 제 생각에는 전작권 전환은 그냥 전작권 전환으로 끝나지 않는다, 주한미군 감축도 하고 같이 어우러진 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군사비 증가가 21조, 27조가 아니라 100조 원을 넘어설 거다.

지금 국가부채가 1300조 아닙니까, 거의? 1276조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어떤 군사비, 지금 우리가 61조를 쓰는데 군사비용의 엄청난 증가로 이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GDP 대비 우리 국가부채가 50% 훨씬 넘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신용등급에도 적지 않은 영

향을 미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단순 숫자적 개념으로 또 자주적 개념으로 우리가 빨리 전작권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군사능력 확보가 중요하다.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동의합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후보자님,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 핵무장이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제한적 핵무장입니다. 북한이 핵 폐기할 때까지 우리도 핵무장을 하겠다. 저것은 자체적·제한적 핵무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우리 대한민국은 NPT 체제에 속해 있기 때문에 NPT 체제를 탈퇴·이탈하지 않는 한은 어떤 핵도 한반도에 핵을 가지고 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상현 위원 그건 반대하시지요.

그러면 NPT 10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국가 위기 상황, 국가 위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때는 우리가 탈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고 주한미군 감축이 되고 엘브리지 국방부 정책차관이 얘기한 대로 핵무장해 주겠다 이런 식이면 전작권 전환을 가져올 때는 자체적 핵무장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러니까 위원님의 말씀은 대전제가 우리가 통상과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NPT를 탈퇴해서 우리 스스로 자력갱생하고 살 능력과 역량이 되면……

○윤상현 위원 그런데 자력뿐만이 아니라 NPT 탈퇴하더라도…… NPT 탈퇴는 미국의 어떤 동의를 얻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체적·제한적 핵무장하자.

그러면 지금 북한이 배치될 ICBM이 몇 개라고 보십니까, 실전 배치된 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윤상현 위원 10여 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ICBM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을 때리는데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뉴욕이나 워싱턴을 희생하나? 희생 안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면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이 될 거고 핵 동결로 가면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됩니다. 핵 보유국이 되는 마당에 전작권 전환한다? 이진 있을 수 없다. 적어도 우리가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려면 우리도 미국 동의를 얻어서 자체적·제한적 핵무장을 할 정도가 돼야 전작권 논의를 완성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장관님.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물론 핵은 핵이 있을 때……

○윤상현 위원 그래서 사실상 한반도 게임체인저가 ICBM이고 ICBM의 실질적 능력을 볼 때 당연히 미국은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때는 우리가 제한적·자위적 핵무장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잘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상현 위원 말씀 있으세요, 후보자?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

리가 NPT 체제에 속해 있고 IAEA 사찰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무원의 상태로 가기 때문에 우리 역량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불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윤상현 위원** 그래서 장관님, 저는 미국의 동의를 얻어서 하자는 겁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께서 ICBM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판단되기는 ICBM은 성공 여부를 아직 판단할 수가 없다고……

○**윤상현 위원** 그런데 적어도 2~3년 내로는 성공이 됩니다, 2~3년.

.....

○**위원장 성일종** 마무리하시지요.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위원** 먼저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장관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감사합니다.

○**백선희 위원** 윤석열 정부 3년간 대한민국 곳곳이 무너져 내렸고 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개혁 과제가 있습니다. 특히 12·3 불법 내란, 계엄을 겪으면서 국방부는 군의 정체성 혼란과 무너진 우리 군의 기강과 사기를 빠르게 바로 세우고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차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공범이자 주동자인 군 출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앞장서 무너뜨린 우리 국군을 재건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동의합니다.

○**백선희 위원** 64년간 군 순혈주의에 갇혀 있던 국방부의 문민 장관후보자의 지명은 앞으로 군의 문민화,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 제대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민 국방부장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문민 통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법에 문민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문민 통제를 못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군의 실질적인 문민화가 곧 국방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2006년에 국방개혁법을 제정할 때부터 국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문민 기반의 확대라고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고요. 그 문민 기반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민간 관료와 군인의 특수성·전문성이 상호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국방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이미 이 국방개혁법에 군의 문민화가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20여 년 동안 군의 문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가 또 국방위에서 5선 국회의원이지면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오셨거든요. 이게 행정부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사법부의 잘못일까요? 어디의 잘못일까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사실 국방 문민화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전쟁이 일어나도 하등 이상할 것 없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 모든 민

주국가는 문민 국방장관이 거의 90% 이상을, 사회주의국가 공산국가 빼놓고는 다 문민 국방장관이, 독일이나 포르투갈은 여성이 문민 국방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한반도 역내 고려해서 문민 장관이 그동안 지난한 숙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선희 위원** 저는 국방개혁법이 그동안, 군 순혈주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이 군 순혈주의 아래서 오히려 사문화되었던 것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군인 복무기본법 5조에 국군의 강령이 있고 거기에는 국민의 군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그동안 국민의 군대 육성은 조금 등한시하고 국방개혁법에 민간이라고 하면 공무원 민간 구성비율 이런 거를, 숫자를 조금 중요시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데 급급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대로 된 국민의 군대가 아니었기에 이번 12·3 불법 계엄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로써 우리 군이 민주주의 원칙하에 군사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후보자, 후보자가 생각하는 군의 문민화는 무엇입니까? 장관으로서 이를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신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대부분의 정치군인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군은 국가에 헌신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본연의 맡은 바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런 군입니다. 다만 몇몇 정치군인에 의해서 오염돼 있는 것이지요. 국방 문민화라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선출된 권력이 군을 통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게 저는 문민 통제고 국방 문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지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군 문민화를 위한 세 가지 방향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방부의 실질적인 문민 인사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 번째로 우리 군이 군복 입은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첫 번째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국방부의 실질적 문민 인사 강화와 관련해서 사실 후보자를 국방부장관으로 지명한 것 자체가 군 문민 통제 강화를 위한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 문민화 아래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로 민간인 획득목표라고 하는 거, 국방개혁법에 의하면 국방부 정원의 70% 이상은 군인이 아닌 공무원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에 물어봤더니 이 70% 이상은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은 육사 38기 김용현, 육사 37기 신원식, 육사 40기 이종섭, 다 전역 후에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은 육사 순혈주의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문민화 국방부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단기사병 출

신의 국방 전문가인 안 후보님이야말로 진정한 국방, 문민 국방부장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방부 정원의 70% 이상을 이미 군인이 아닌 공무원으로 채웠다고 국방부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문민화를 이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70% 안에 허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 문민화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특성이 있습니다. 꼭 필수직위에 현역군인이 가야 될 자리가 있고 전역 후에 리타이어해서, 현역군인이 제대를 한 다음에 그분의 특성과 역량을 살려서 그 자리에 보임해야 될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현재는 한 7 대 3의 비율은 맞습니다마는 바로 전직을 하고 제복을 입고 다시 그다음 날 사복을 입고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필수직위들은 군에…… 왜냐하면 요 해군 장군이 공군 용어 모르고 공군 장군이 육군 용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병과는 전문적으로 알지만 타 병과는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합참에서는 합참은 2 대 1 대 1인데 이제 준 4군 체제가 되는 해병대가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선희 위원 저는 형식적 문민화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백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우선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청문회 시작할 때 논란이 됐던 것 중에 사실관계 확인 좀 할게요.

교련 45일 면제를 본인이 거부하신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제가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하는 단기사병들한테 당시에 밤에 영어와 한문을 가르쳐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분위기가 이 친구들이 술을 먹거나 아니면 잠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제 동생뻘 되는 병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일과 후에 한문과 영어를 가르쳐 주는 그게 재미가 있어 가지고 굳이, 1·2월 달에 방학 기간이 있기 때문에 더 남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혜택을 안 받았습니다.

○부승찬 위원 병역 신체검사에서 을종 받고 3년 후면 면제입니까, 그때 제도적으로?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서해안 쪽은 아마 현역 입영률이 약 30% 됩니다. 그 나머지는 다 단기사병 방위고요. 그래서 을종을 받고 이쪽 서해안 쪽은 그때 당시 대간첩 작전이 많아 가지고 3년이 지나면 3주 미필교육을 받고 끝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무를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그때 당시에, 복학 당시에 제대증은 받으셨지요? 제대증을 받고……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받았으니까 학교에 복학이 되는 것이지요. 제대증을 안 내면 학교에 복학이 안 되는 것이지요.

○부승찬 위원 어머니께서 2~3주간 군인에 대한 점심 제공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때 당시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000불 정도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3만 6000불 정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먹을 게 없던 시절이에요. 그것을 포상을 줘야지 이런 것을 갖고 지적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단기사병이라 장관 하는 게 군정과 군령을 위해서 우려된다 그 차원에서 봤을 때, 제가 군대 갈 때는요 50%, 저희 친구들이 현역 판정을 받고 50%가 단기사병으로 왔습니다. 이것은 단기사병들에 대한 모독이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예를 들까요? 월남전과 쿠바 미사일 사태를 해결한 장관 군대 갔다 왔습니까? 안 갔다 왔습니다. 기업인이었어요. 맥나마라 아시지요, 장관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압니다.

○부승찬 위원 아시지요? 포드자동차 CEO였어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군대에서 그런 베트남전쟁을 겪고 두 번에 걸쳐서 국방부장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 출신, 장성 출신은 1947년 미국이 국방부가 창설되고 나서 세 차례에 불과했어요. 국방창설법에 따라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늦었어요. 왜 민간인은 장관이 돼서는 안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것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병역법도 그렇고 헌법도 그렇고 국방의 의무를 강조하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부승찬 위원 그런데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방의 의무에 충실하는데 국가는 책임지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진급제 폐지,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군대를 가요. 그런데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진급을 안 시켜. 물론 보류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적절한 겁니까? 거기 지휘관들을 문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논리로 치면? 아니, 현역 판정을 받고 갔는데 체력이 오히려 떨어져, 그래서 진급이 안 돼. 그러면 부대 운영에, 교육 훈련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국가가 책임을 의무자한테 강요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6·25, 베트남 참전용사 예우와 관련해서 물론 보훈과 관련된 거지만 월 참전수당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45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돈 없는 지자체는 3만 원을 추가적으로 주고요, 그리고 많이 주는 데는 50만 원까지 줘서 100만 원 채우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전장에 나가서 목숨을 걸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대부분 연세가 70~90이에요. 6·25 참전용사는 90세가 넘어요. 이런 걸 봤을 때, 군 생활 30년 열심히 하고 나와서 연금 받으면 한 달에 사오백씩 받아요. 그런데 참전용사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달랑 45만 원 줘요. 이게 돈 몇 푼이나 됩니까? 너무 인색한 거 아닙니까? 누가 전장에서 국가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복무 중 사망한 장병들 있잖아요. 군인사법 54조에 따라서 순직을 I·II·III형으로 나뉘요, 군인사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대로 순직 I형·II형·III형으로 나누잖아

요.

아니, 의무복무 하러 갔는데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어. 이거를 유족의 말 그대로 빌려서 ‘저희 자식이 한우 등급 매기는 겁니까? 그러려고 국방의 의무에 충실했던 겁니까?’, 말이 됩니까?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 I·II·III형으로 왜 나눕니까? 이 평가 기준도 전부 주관적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재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국가는 의무만 강조하고 책임은 지지 않습니까? 왜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군 장병들은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됩니까? 왜 싸늘한 주검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돌아온 우리 불쌍한 자식을 보면서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까? 전쟁에 참여한 우리 선배 전우들은 딸랑 45만 원 주고 30년, 전쟁에도 참여 안 한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400, 500을 줍니까?

이런 것들 돈 몇 푼 안 들어갑니다. 형평성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국가에 충성한 우리 70~90세 어르신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후보자님?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제가 장관이 된다면 특히 참전용사 연금에 대해서는 한번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장관님, 참전용사 수당을 좀 올려 드리는 거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방부 소관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알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1분만.

○위원장 성일종 예, 1분, 한기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부승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군대 생활 30년 하고 나서 400, 500 국가에서 받는 거에 대해서 잘못 받는 것 같은 표현을 쓰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부승찬 위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는데……

○한기호 위원 아니, 우선 군 생활 30년 이상 한 사람들은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기여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승찬 위원 아니, 그거를 비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말을 ‘아’를 했는데 ‘어’로 받으십니까?

○한기호 위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군 생활 30년 이상 한 사람들이 국가에서 실제로 연금 받는 자체가 이걸 자기 기여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부승찬 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한기호 위원 400, 500 받는 게 무슨 죄지은 겁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부승찬 위원 아니, 왜 죄지었다고 하십니까!

○한기호 위원 한쪽을 하기 위해서 이쪽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성일종 감사님.

○한기호 위원 비교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부승찬 위원 아니지요! 30년 복무한 대로 전시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그만큼의 대우를 해 달라는 입장이지 왜 그거를 아를 어로 받으십니까?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거기다 비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부승찬 위원 뭘 비교를 잘못해요?

○위원장 성일종 장관님, 참전용사들에 대한 수당 문제는요 국방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다 그분들의 음과 양의 덕이 있고요. 돌맹이 하나, 풀 하나에도 저는 참전용사의 혼과 넋이 서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임종득 위원입니다.

먼저 국방부장관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감사합니다.

○임종득 위원 본질의하기 전에 두 가지 정도 먼저 언급을 하고 준비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한기호 위원께서 제시하신 대학 학적부와 복무기간 겹치는 문제 그거는 사실은 많은 의혹들이 저한테도 들어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대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병적기록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대증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시에 제대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파악해 가지고 오후에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선원 위원이 작전지휘 자신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 했을 때 의장과 상의해서 하겠다, 잘 답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장이 중요합니다. 정말 군령권을 잘 보좌할 수 있는 의장을 선발하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NSC 상임위원에 합참의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번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질의 하겠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에 탈냉전의 시대를 맞았고 외교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그다음에 대만 사태, 북한의 핵 위협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게 다시 냉전으로 가는 게 아니냐, 전쟁의 시대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차제에 지금 문민 장관으로서 안규백 후보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질의들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보셨지요? 적대적 두 국가론, 이게 23년 12월 말에 당 전원회의에서 ‘두 교전국 관계다’라고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고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이다’라고 우리 한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남북이 특수관계에서 2023년인가요, 두 관계 교전국으로 고착한 것은 북한이 자기들의 무장과 또 대내외적인 어떤 과시 또 남쪽에 대한, 남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적대행위를 불변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지요.

○**임종득 위원** 그렇지요?

다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되고 나서 첫 출근 당시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북한은 적이면서 동포, 항상 두 가지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임종득 위원** 지금도 이 생각 변함없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장관은 제복 입은 군인이 아니고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적임과 동시에 우리 동족이라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보다는 평화를 지향해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장관은 제복 입은 군인이 아니고 정무직이기 때문에 이런 시각을 가져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 국민으로서 아니면 통일부장관후보자로서 이 발언을 했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의 후보자가 지금 첫 일성으로 낸 것이 이거라는 것에 제가 좀 놀랐습니다.

국방백서 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올려 보세요.

22년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 때는 주적이라고 얘기했고 방금 후보께서도 주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을 통해서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많이 앗아 갔어요. 그리고 20년 9월에는 표류 중이던 우리 공무원을 총으로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6·25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만들었잖아요. 김정일은 어떻습니까? KAL기 폭파, 강릉 무장공비 침투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도발을 했습니다. 이러한 북한 정권이 과연 동포입니까? 동포로 봐야 됩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위원님, 저희 집안은 반공 운동을 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6·25 때 가장 피해가 많았던 집안이고요. 그런 연유로 제가 국방위에서 5선 내내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족들이 거의 반공 운동, 공산당과 싸워 가지고 50여 명의 사촌간이 학살당하고 죽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이유로 한기호 위원님처럼 접경지역도 아니고 서울 사대문 안에서 일관되게 국방위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확고한 신념과 소신에 의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국방부장관후보자가 발언하는 내용을 지켜보고 있을 우리 장병들에게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북한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장병들이 지금 대적관을 가지면서 적이 도발하면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적의 도발을 응징해 내는 것을 그 임무로 받고 살고 있는데 ‘적이자 동포’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유니폼을 입은, 제복을 입은 군인들은 확고한 대적관을 정립해야 되고 유니폼을 벗고 사복을 입은 정무직 장관은 한반도에 전쟁 없는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는 북한이 예뻐서가 아니라 두 가지 시각을 놓고 바라봐야 전쟁 없는 평화를 구축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은 50만 장병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있고 그 첫 출근길에 지금 대비태세를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단호한 대응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된다는 표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위원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충고 잘 받아들이겠고요. 한기호 위원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지상에서, 해상에서, 육상에서, 공중에서, 서북도서에서까지 군사 대비태세를 가장 일성으로 내서 한기호 위원님한테 벤치마킹한 겁니다. 첫마디가 그 일성이었습니다, 첫 단어가.

○임종득 위원 이번에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알겠습니다. 잘 참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오전 질의를 정리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이 병적기록을 요구하셨는데 저는 국방위원장을 하면서도, 군의 지휘관들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후보자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국방부장관을 빨리 임명해서 군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고 요청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또 김민석 전 최고위원한테도 제가 전화를 드렸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야당의 협조가 없어서 못 됐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후보자님이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장관보다는 빨리 임명을 하는 데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의 사령관이나 지휘관들의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병적기록부를 요구하신 위원님들만 보시게 해도 좋습니다, 비공개로. 그래서 이것을 빨리해 주셔야 인사청문보고서든 이런 것들을 위원장으로서 서둘러서 마무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장관후보자님의 아주 확실한 적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든

든합니다. 그런데 정동영 후보자가 말이지요,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이제 내각에 들어가시면 통일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이 토론하시게 된다고요. 이게 아주 굉장히 논점으로 부상할 수가 있습니다.

위협과 주적이 어떻게 다른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저는 50만 대군을 통솔해야 할 국방장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적관과 북한관은 확고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들어가시면 이게 아주 좋은 스탠드이시고, 여러 가지 확고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을 국방장관으로서 확고한 인식에, 나라를 지켜 주시는 데 앞장서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또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겠다,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정동영 후보자가. 군은 훈련이 생명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연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후보자님께서 같은 내각에 있더라도, 훈련 없는 군대가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전쟁을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힘에 의해서 유지한다 이러셨거든요, 평화를. 그 힘에 의해서 유지하는 것은 바로 훈련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의 확고한 생각을, 아까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정동영 후보자가 통일부를 한반도부로 변경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한반도부로 명칭을 변경하면 후보자님, 어떤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제가 타 부처 장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이제 한미……

○**위원장 성일종** 후보자님, 적절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는 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국방장관은 국민의 생명, 나라의 영토를 보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장관이 뭐라고 하든 난 개의 안 하겠다’ 이런 사항이 아니란 말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적대적 2개 국가론을 김정은이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적입니다. 그리고 외교관계에 의지하는, 남아 있는 게 외교관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지향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의 유고나 변란 사태가 났었을 때 우리가 북한으로 들어가야 한다고요. 그런데 통일부가 아니고 한반도부 같은 경우로 변경이 돼 버리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땐 우리 군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북을 포기하는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서 항상 북한은 우리 적으로 규정을 했고 모든 것은 적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미훈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한미동맹의 기반하에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한미연합방위체계 구축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훈련과 연습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이 영토주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위원장 성일종 우리 헌법에 명시돼 있듯이 미수복지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방부장관님께서서는 정확하게 이것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져 주시기를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 그랬거든요, 정동영 후보자가. 이것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9·19 군사합의는 6·25전쟁 이후에 남북 간의 최초의 군사적 합의입니다. 군사적 합의고, 지상·해상·공중에서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우발사고를 막자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원한다고 해서 바로 복원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문제는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준까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복원한다고 복원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바로 복원될 문제가 아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복원한다고 해서 바로 복원될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6·25전쟁 이후에 최초의 포괄적·군사적·실천적 합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낮은 단계부터 실천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한 적이 없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없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9·19 군사합의도 북한이 먼저 어긴 겁니다. 포문을 비롯해서 도발을 4000회 넘게 했거든요. 그리고 비례성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GP도 폭발하고 보니까 다 위장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우리만 손해 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해병대에서 훈련을 하는 데 지금 나오는데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를 비롯해서 육상으로 갖고 나오는데 엄청난 돈이 지금, 경비가 들고 있는데 이 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9·19 합의 이후로?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1년에 20억 이상 넘어 가지고 지금 한 13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에게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인식의 체계를 가지고 국방부장관으로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위원님들 오전 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3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한기호 위원 후보자님의 인사청문요청서 사유에 보면 총 893 글자 중에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또 오늘 인사말씀하시는 데 여기서도 북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후보자님께서 북한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국방부장관을 수행하는 데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 참 의아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인근에 또 새로운 핵시설을 건설 중이라는 결과를 공식 발표하였고 핵시설 복합단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023년 김정은은 최고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 ‘선대 수령들이 남겨 준 고귀한 유산이며, 우리에게 핵이 없으면 죽음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했는데 핵심은 저 다섯 가지입니다.

‘핵을 가지고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고, ‘전술 핵무기의 실질적인 운용을 하겠다’, ‘위협이 임박함으로써 이때는 언제든지 핵을 사용하겠다’ 또 ‘위협에 처하면 자동적으로 핵으로 타격을 하겠다’, ‘핵을 통해서 전쟁의 주도권을 잡겠다’ 이렇게 법제화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지요.

핵무기 법제화 조치에 총 11개 항목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저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3번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여기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자동화된 핵 타격체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명령을 내리든 안 내리든 상황이 되면 자동적으로 쏘라’ 이렇게까지 아주 분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핵무기 법제화 6개 항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쪽 이야기해 놓은 것이 사실 우리한테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분명하게 핵무기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한미연합체계에서 한미연합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한미가 핵우산을 더욱 공고히 하는 그런 체제로 더욱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호 위원 장관을 하시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난해한 문제가 될 겁니다. 이 문제가 사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재래식 무기로 핵을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여기에 보시면 김일성의 ‘국토완정’, 김정은의 ‘령토완정’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완정이라는 말 자체가 말 그대로 완전히 정복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일성이 남침 공식선언을 하는데 이때 국토완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서 6·25 남침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일성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정은은 영토의 완정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을 핵무력을 통해서 완전히 정복하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실질적으로 핵에 대해 얼마나 대응력을 갖추고 있는냐? 이것은 조금 전에도 후보자님이 얘기하셨지만 한미동맹에 의한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한미동맹을 자꾸 흔드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후보자님의 의지가 없으면 흔들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질의하면서도 이게 흔들려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면 여기에 대한 책임이 바로 장관님한테 간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어느 경우가 오더라도 한미동맹관계, 더 나아가서 그 기반으로 한 한미연합방위체계는 더욱더 공고히 하고 한 단계 더 상승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도 우리의 자력을, 자강을 갖추기 위해서 3축체계, 킬체인, KAMD, KMPR에 대해서 더욱더 전략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예,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오전에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러가 우리 영공에 진입하였다는 듯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러시아의 2019년도 울릉도 영공 침범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중·러는 KADIZ에 진입한 것은 맞으나 우리 영해나 영공에 침입한 사례는 없습니다.

동시에 또 윤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작권 전환 시 우리 방위비를 21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추정되는 의견이 있다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군은 이와는 별개로 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해서 사실상 구체적인 소요 예산을 산출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권 전환의 경우에는 미래연합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계획대로 당연히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 위원 후보자님, 우리 방위비 규모가 거의 세계 5위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무기체계만 보더라도 육군의 K-9 자주포, K-2 전차, 레드백 장갑차, KF-21, 이지스체계, 미사일체계, 드론봇 전투체계, 미래전투체계까지 그 무기체계 자체도 상당히 세계적 수준입니다.

그런데 인구절벽 시대에 군 병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있는 군인들마저 ‘직장 생활로써 군은 별로 매력이 없다’, 이렇게 다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급여체계에 대한 불합리함, 불공정 그다음에 자녀들 교육 문제,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 또 다른 직종보다 군인이 전역을 빨리하잖아요. 은퇴 후 삶,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이유인데.

우리 군 체계가 보통, 항상 제 느낌은 전시체제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성적으로 정부가 마치 무료 봉사, 우리 군은 당연히 애국심이 발동해서 무료 봉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료 봉사하고 의무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렇습니다.

○황희 위원 실제로 전쟁이 70년째 평시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의 사기는, 누구라도 군에 가고 싶다……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형편없는 북한 군인들도 상대적으로 군에 가면 사회적 대우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모병제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군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누구라도 군에 가고 싶어 하고 또 군에서 복무하면 국가가 나의 삶과 우리 가족의 삶과 이런 것은 책임진다는 그런 믿음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국방개혁이 정말로…… 국방개혁 2030, 우리 군의 복지체계가 혁신적으로 단계별로 변화하는 그런 계획이 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보면 임금만 해도 그래요. 보통 해외 같은 데 보면 동일 집단 수준에 맞게 하는데 우리는 군이 공무원의 봉급 수준에 훨씬 떨어져요. 그다음에 전투기라든가 헬기조종사, 잠수함 승조원들은 거의 뭐, 현실이 암담하기만 하지요. 그래서 이게 임금체계도 전환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녀 문제도 정말 누구나 보내고 싶어 하는 그런 국제학교 수준의, 군 자녀면 그런 혜택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주거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가뜰이나 이렇게 많이 옮겨 다니고 이러는데 그때그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이 좀 안정돼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이 안정돼야 국가에 충성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평상시 군 생활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과 경로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계속 이런단 말이에요. 형평성 이야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군에 대한 그런…… ‘국방의 신성한 의무’ 하면서 군인들에 대해서는 정작 신성하게 대우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한반도가 분단된 상황에서 군의 중요성은 그야말로 정말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군에 복무하는 군인들에 대한 대우가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말로만 이렇게 쪽 하지 말고 정말 획기적으로 국방개혁에 담아 가지고, 군의 복지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급여체계라든가 자녀 교육 문제라든가 은퇴 후 삶에 대한 문제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플랜을 잡을 의지와 계획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한 수준만큼 군도 여러 가지 복지체계가 발전·증진돼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발전에 우리 군의 여러 가지 복지체계나 급여체계가 못 따라간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단순히 급여와 복지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래서 국방혁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컨대 기마전을 하면 기수가 무거우면, 하체가 약하면 기마전에서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군의 상하 체계, 고위직과 하위직 간의 균형, 무게중심 또 여러 가지 균질하지 못한 점, 이런 점까지 복합적으로 해서 제가 실사구시적인 측면에서 한번 깊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윤석열 정부가 보여 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칙 없는 맹목적 지원 외교 그 폐해가 지금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더구나 빨대를 꽂고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 했던 여러 관련자들이 지금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질의를 통해서 우리의 전략도 좀 고민해 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외신 보도에 보면 미국 국방부의 요격용 패트리엇 미사일이나 또는 탄약 비축량이 군사작전 계획상 필요량의 약 25%에 불과하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알려졌습니다. 탄약 재고도 크게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사실 군수물자 생산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10배나 증액하라는 요구를 한 상황에서 지금 세계적 안보 상황 그리고 동맹국의 협조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방산 능력은 트럼프 측도 크게 의존하고 싶어 하는 처지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고도 협상력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장관님께서도 좀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이제 우리나라도 1950년대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협상 문제도 작년에 여덟 차례에 걸쳐서 12차 협상을 이미 국가의 비준 상태로 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동적 자세보다는 체계적이고 능동적 자세로 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미애 위원 그다음에 아마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 명칭을 한반도부로 바꿨으면 한나라는 의견 때문에 이곳에서도 장관님께 대한 질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사례에서는 독일통일의 전초 단계, 서로 화합하는 화해의 분위기, 교류 협력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전독부에서 내독부로 명칭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보씩 교류 협력을 향해서 나아간 역사를 독일대사님이 알려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통일부가 명칭을 한반도부로 바꾼다 하더라도 국방부로서는 적으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국방부 본연의 역할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건 각 부처의 상호 견제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방부가, 저는 개혁 쪽에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가 군 정보기관 개편에 있다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장관님께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번 내란을 보면서 방첩사가 방첩 기능, 대전복 기능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란수괴인 군 통수권자한테 휩쓸려 가 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부하로서 내란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에 방첩사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미 방첩사 본연의 역할을 상실해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방첩사의 개혁이 아주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국방위원회가 군 정보기관 통제를 실질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군 정보기관의 국회 예산심사를…… 국정원이 예산을 다 일원화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777사나 정보사나 예산을 전부 국정원이 통할·조정·안배를 하면서 예산통제 때문에 군 정보기관도 모두 정보위가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래서 국방위원회가 군 정보기관을 통제하고 예산도 국정원에 예측시키지 않도록 하는 개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방첩사에서 방첩 기능만 하면 되지 수사 기능은 빼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먼저 방첩사 역할·기능이 본연의 역할을 못 한 게 저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국정기획위원회에서나 여러 단계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존치, 부분 기능 조정, 완전 폐지, 세 가지를 모두 놓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동시에 정보기관 같은 데에 국정원의 예산이 편입돼 있어 가지고 국회 국방위 본연의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은 저도 국방위를 오래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관심을 뒀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국방부는 정부 속의 작은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부가 다 있다고 통상 이야기를 하는데 법사위 가는 문제도 저는 좀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대표님께 건의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미애 위원 적극적인 개혁 의지를 믿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좀 전에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오전 질의에서 좀 언급이 있었는데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군정과 군령 이 문제 우리 국민들이나 아니면 장병들이 상당히 기대도 있는 만큼 문민 장관이 되신다면 또 우려하는 부분도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든다면 육군의 소위로 임관해서 장성이 되기까지는 최소한의 기간이 한 26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그동안에 장성이 되기까지 났아 오면서 약 한 2900여 시간이 넘는 그런 작전지휘라든지 결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습하는 시간이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런 실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위원회 소속으로서는 오랫동안 몸담아 왔었지만 실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교육을 이수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약간 큰 공백을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메워 가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고 군정과 군령을 관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군정과 군령에 있어서, 특히 군령 부분에 있어서는 합참의장도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합참의장에게 일정 부분 권한을 많이 줄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람은 살면서 책을 통한 공부 또 사람을 만나면서 책에 없는 절절함을 배우는 공부 이런 것들도 여기 계신 김병주 위원님이나 임종득 위원님이나 장군 출신이신 한기

호 위원님하고 수십 년을 토론을 많이 해 봐서 직간접적으로, 국방위 15년 17년이면 최소한 대령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후보자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나 장병들이 우려를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보면 군령과 군정이 약간 이원화되어 있는 이런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각 나라마다 약간씩 상이합니다. 상이한데 모든 지휘관을 사령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장관의 참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긴박할 때는 참모의 의견을 듣고, 각 군 총장과 의장의 의견을 듣고 거기서 정무적 판단과 직관적 판단을 적시에 하는 것이 저는 장관으로서 해야 될 그런 정무적 감각과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대식 위원님이 저를 십수 년간 봐 오셨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좀 전에 추미애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조금 있었는데 후보자께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방첩 기능은 방첩사, 수사는 조사본부, 정보보안은 합참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것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강대식 위원 없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없고요. 지금 기존 그다음에 부분 조정 또 해체 수준, 이제 가지를 놓고 여러 가지 사계의 전문가들과 또 여야 위원님들의 의견을, 고견을 청취한 연후에 결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분석 없이 기능을 이렇게 분산·이관하는 것은 군 정보역량 전체의 약화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작전 능력이라든지 대응체계라든지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완책을 후보자께서 마련한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보완책은 후보자께서 갖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런데 강 간사님, 12·3 내란이 있는 연후에 문민장관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또 정보사나 방첩사가 고유의 기능을 상실한 채 내란에 깊숙이 개입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혁이 필요하면 개혁이 필요한 대로 또 보강이 필요하면 보강이 필요한 대로, 저는 정보사와 방첩사가 우리 한반도 전구에서 가지고 있는 역사성 사회성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평가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위원장님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까 2분 정도 의사진행발언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예, 하세요.

○김병주 위원 오늘 저는 성일종 위원장님께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오전에 아침에 MBC 라디오에 나가서, 제가 무인기에 관련해서 지금 국민적인 의혹을 풀고 있습니다. 외환죄나 이적죄나, 이런 범인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아서 무인기에 대한 것을 어제 오늘 공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성 위원장은 ‘김 위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외환죄로 엮으려고 하는데 군을 정치에 이용해서 안 된다’, 마치 제가 이렇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치에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에 더해서 ‘4성 장군 출신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국방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적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이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보통적인 드론사의 작전 활동은 저는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외환죄나 이적죄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 또한 12·3 내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밝히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 오늘도 밝히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적죄를 찾아내는 경찰을 마치 범인이 너보고 이적죄다라고 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성일종 위원장은 과연 국방위원장 자격이 있는 겁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까? 12·3 내란이 났을 때 해제 결의에 참가했습니까? 또한 이러한 내란수괴를 탄핵소추안 할 때 찬성했습니까?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죄하십시오. 만약에 사죄하지 못하고 이것이 주관이라면 당장 사퇴하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앞에 동료 위원이 얘기할 때 비웃는 자세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보여요.

장관후보자님, 아침에 제가 드론사령부가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라고 시간이 없어서 개념만 얘기했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드론사령부가 12·3 내란 이후에 여러 가지로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먼저 101대대 1중대를 중대 명칭을 바꿨어요. 원래 정찰중대에서 또는 브라보중대라고 했는데 12월 1일 날 드론사령부의 지시로 1중대로 바꿨습니다. 도대체 중대 이름까지 바꾸는 것 제가 39년 동안 군생활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대 전체를 바꾸는 경우는 있는데 이것은 증거 인멸로 보이고요.

그 101대대는 인원까지 다 교체를 해 버렸어요, 핵심을. 대대장, 정작과장, 주임원사, 중대장을 드론사가 아닌 다른 부대로 보냈어요. 대대장은 정보사로 그다음 정보작전과장은 해병으로 원복시키고 주임원사도 해병으로 그리고 그 내에 있는 반장들, 상사급들은 드론사 내의 다른 부대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GCS,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상통제장비입니다. 이것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목적으로 덮어씌우기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러면 지상통제장비에 있는 비행기록들이 다 삭제가 됩니다, 업데이트되면. 이것이야말로 증거 인멸로 보입니다. 컨테이너 화재 사고도 이와 관계 있습니다. 이날 당직자가 사실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제대

로 처벌도 받지 못했고 나중에 표창까지 받았어요.

이렇게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용대 사령관을 당장 교체하고 이렇게 증거 인멸이 되지 않도록 당장 지시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제가 장관이 된다면 이 부분을 포함해서 면밀히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비정상화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으로 했던 것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한번 띄워 보시지요.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바로 2주도 채 안 돼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서 김태호 1차장이 팩트는 그대로인데 이것을 사실을 뒤엎습니다, 수사를 종결하고. 5월 24일 날 열고 상임위원회를 5월 26일 날 엽니다. 열어서 차관하고 장관들, 해경청장을 불러서 수사 종결을 하고 거기의 관련자들을 감사원 감사하고 이런 조치들을 합니다.

수사 종결이 되려면 해경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정하는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결정된 날이 6월 3일입니다. 그래야 종결되는데, 이미 국방부는 이때 회의를 통해서 보면 5월 30일 날 종결 보고할 때 브리핑 자료까지 만든 겁니다.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종결을 짓습니다.

이때 합참의 정보 판단은 월북 추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합참의 정보 판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혹시 확인해 보십시오. 월북 추정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따 휴식시간에 하고 혹시 이따가 한번 답변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현재 이 사건은 합참 정보 판단이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어거지로 만들어서 그 관련되는 장관들, 관련되는 사람들을 기소시키고 재판을 받는데 지금 2년이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의 정상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단히 중요해요. 장관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이 부분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는 현재 비공개로 발표를 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김병주 위원 수사는 끝났어요. 재판 중인데.....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재판 중이기 때문에.....

○김병주 위원 이것은 이미 비정상의 잘못된 거고 이것을 뒤짚은 과정은 수사 중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하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제가 장관이 되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다시 해서 장관은 윤석열 정권에서 비정상적으로 된 것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것이 핵심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비정상화된 것을 찾아서 정상화시키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정치적 발언을 아주 천연덕스럽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는데 화면을 보신 국민이 계시다면 그때 당시에 동시에 웃는 위원들이 몇 분이었는지 충분히 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장관후보 청문회장에서 뜬금없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국방위원장이 참가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합니다. 김병주 위원은 이 똑같은 내용을 국방위에서 수차례 발언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12월 3일 당시 여야 국방위 위원들이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를 방문하고 있었습시다. 그러다 12·3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일정을 다 취소하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복귀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병주 위원께서 시간만 나면 계속 이걸 가지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을, 국방위원들을 욕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료 위원으로서 모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세 차례가 넘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지금 저는 사과를 받아야 되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국방위원이,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에 여야 위원이 가 가지고 해제에 참여하지 못했던 걸 가지고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주 위원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주 위원** 해명할까요?

○**임종득 위원** 하세요.

○**김병주 위원** 해명 기회 주면 할게요. 기회 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께서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같은 방송에 제가 연달아서 나갔습니다. 저는 사실 김병주 위원께서 방송하는 건 못 들었고 그 말씀 중에 내가 들었는데, 김병주 위원은 많이 정말 존경받는 분입니다. 4성 장군까지 가셨고 당에도 최고위원을 하고 계신데 드론사의 이게 언론에 발표가 안 됐거든요.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일시, 장소, 방법, 모든 것을 다 언론에 그냥 다 얘기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작전에 있어서 대칭적인 측면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북한에서 사드기지를 촬영해 가지고 넘어가다가 우리나라에 떨어지지 않았나요? 용산에 와 가지고 우리 용산 앞까지 한강을 따라와서 다 휘젓고 갔지 않았나요? 우리 군이 봤었을 때, 우리가 그런 작전을 안 한다고 하면 북한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는 당하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이러한 군 작전에 대해서……

○**박선원 위원** 그 작전 하세요. 그런데 왜, 내란의 변으로 써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임종득 위원** 뭐하는 거야, 지금!

○**강대식 위원** 또또…… 이야기 좀 들어요.

○**한기호 위원** 뭐하는 거야!

○**박선원 위원** 내란, 기밀을 써 먹으니까 내란이지! 누가 작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작전 똑바로 하세요!

○**한기호 위원** 아니, 김병주 위원이 질의하니까 위원장이 지금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중간에 끼어요?

- 박선원 위원 소음하는 무인기 해 가지고 걸리는 게 작전이에요?
-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품위를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 박선원 위원 품위를 좀 지키게 말씀하세요. 어디, 동료 위원한테 이적죄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 위원장 성일종 품위를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 박선원 위원 품위 지키세요, 위원장!
- 한기호 위원 소리 지를 줄 몰라서 소리 안 지르는 줄 알아요?
- 박선원 위원 한기호 위원님 아침에 무지하게 질렸어요!
- 한기호 위원 좀 가만히 있어요, 좀!
- 박선원 위원 많이 지르셨다고요, 한기호 위원님!
- 한기호 위원 김병주 위원이 얘기하니까 답변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질의한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답변하는데.
- 박선원 위원 무슨 군사작전을 드론작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내란 지원 행위가!
- 한기호 위원 그거를 지금 답변하고 있잖아요. 당신 질의할 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자꾸 중간에 시비를 걸어요?
- 박선원 위원 시비 아닙니다.
- 한기호 위원 그러지 마세요, 좀.
- 박선원 위원 무슨 작전상 기밀을 노출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 한기호 위원 국회의원 됐으면 국회의원답게 좀 하세요!
- 김병주 위원 이적죄라고 그러고, 내란을 밝히려고 하는데 이적죄라고 하는데 그걸 엄포한 거를 지금……
- 박선원 위원 적반하장도 분수껏 하세요!
-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만약에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제가 얘기 끝난 다음에 받아서 하세요.
- 박선원 위원 그래요, 얘기할게요. 15초 빨리 말씀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아니, 그렇게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 가지고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 박선원 위원 건강부회도 정도껏 하셔야지.
- 위원장 성일종 아니, 위원이 지금 얘기도 못 합니까?
- 박선원 위원 정도껏 하세요.
- 위원장 성일종 엔간히 좀 하세요, 품격 있게.
- 박선원 위원 엔간히 하세요, 여기 신문에 나왔잖아요.
- 김병주 위원 내란을 밝히려고 하는 동료 위원을 이적죄라고 하는데 박선원 위원이 가만히 있으면 비정상이지. 이적죄라고 동료 위원을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위원장이.
- 한기호 위원 일본에 갔다온 걸 가지고 표결에 참여 안 했다고 뭐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어떡고. 제발 그런 식으로 그러지 마세요, 좀.
- 김병주 위원 위원장한테 얘기한 겁니다.
- 한기호 위원 아니, 나도 같이 갔다 왔잖아요.

- 김병주 위원 국회 탄핵할 때 왜 찬성 못 했어요, 그러면?
- 한기호 위원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 김병주 위원 그것 가지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 강대식 위원 그것을 왜 강요를 하시고 그래요.
- 김병주 위원 뭘 반말을 합니까? 언제 반말을 해요?
- 한기호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청문회 하는 데서 뭐……
- 강대식 위원 강요를 하시지 마시고……
- 김병주 위원 강요가 아니라 역사에 죄인이 되지 말라면서요.
- 한기호 위원 아니, 위원장 청문회예요? 위원장 청문회 하나고!
- 김병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소추안에 찬성을 안 하신 국회의원들은 역사에 죄인이라고 봅니다.
- 한기호 위원 안 할 수 있지 뭐가 문제예요?
- 김병주 위원 내란 앞에 어떻게, 탄핵소추에……
- 한기호 위원 누가 내란이라고 그래요! 말들을 마음대로 하지 말아요.
- 김병주 위원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 마세요.
- 한기호 위원 그러지 마세요. 김병주 위원님, 세상에 혼자 사는 것 아니에요.
- 김병주 위원 아이고, 참. 12·3 내란 윤석열 내란수괴 편드는 것 역사에 죄인 됩니다.
- 강대식 위원 앞으로 저도 고함을 지르겠습니다. 조용하게 이야기하세요, 조용하게.
- 김병주 위원 그리고 내란을 제대로 밝히려고 하는 동료 위원에게, 그것도 국방위원장이 동료 위원에게 이적죄라고…… 어떻게 이적죄입니까?
- 한기호 위원 아니, 비밀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니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 박선원 위원 비밀이 어디 있어요, 비밀 내용이?
- 김병주 위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미 밝혔던 것들이고 더 확인된 사항을 얘기한 겁니다. 내란을 밝히는 것이 이적죄입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드론작전이에요? 드론작전에 대해서 제가 정상적인 것 한 번이라도 공개한 적 있습니까?
- 한기호 위원 아니,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서울을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니까 보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위원장이 대답하잖아요.
- 김병주 위원 이적죄라고 한 겁니다, 이적죄.
- 한기호 위원 뭐가 문제라고, 뭐가? 뭐가 문제예요?
- 김병주 위원 정확히 보고 얘기하세요! 한기호 위원은 그것을 얘기도 안 듣고 왜 그것을 하세요. 정확히 보세요.
- 한기호 위원 다 같이 앉아 들었잖아요. 뭘 안 들어요, 안 듣기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 김병주 위원 이적죄, 내란을 밝히는 게 이적죄입니까, 한기호 위원님?
- 한기호 위원 비밀을 마음대로 공개하니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이?
- 김병주 위원 비밀 공개가 아닙니다.
- 한기호 위원 뭐가 아니야, 아니기는?
- 김병주 위원 이미 그것은 범죄입니다. 범죄를 공개한 겁니다. 내란을, 전쟁을 일으키는……

- 한기호 위원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남 얘기를 해.
- 김병주 위원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 한기호 위원 정회하세요.
- 임종득 위원 정회합시다.
- 한기호 위원 정회합시다. 이렇게 못 하겠습니다.
- 김병주 위원 무슨 이적죄를 옹호…… 내란을 밝히는 사람을 이적죄라고 하는, 그러니까……
- 임종득 위원 소리지르지 마세요!
-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그만하시지요.
- 임종득 위원 비밀을 노출하니까 이적죄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돌려서 이야기해요!
- 김병주 위원 범죄행위가 비밀이에요?
- 박선원 위원 지금 증거인멸하려고 하는데……
- (장내 소란)
- 임종득 위원 비밀을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 김병주 위원 전쟁을 유도하는 범죄가 이적죄예요!
- 위원장 성일종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아까 제가 말을 하다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격해지는 분위기가 있어 정회를 했습니다.
- 아침에 방송에서 간 부분은 이 회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시게 되면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 또 위원님들께서 회의할 때 발언 중에 자꾸 참견하고 끼어드는 것은 발언하는 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명선 위원 후보자님, 정책질의하겠습니다.
- K-방산 수출을 확대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세계적인 안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한테는 수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K-방산을 더욱더 기술을 개발하고 기획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요.
- 그리고 현재 방사청에 대한 조직이 실질적으로 1개 국에 한 6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좀 더 능동적으로 K-방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직에 대한 이 구조를 더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요.
- 특히 대통령실 중심으로 안보실이 있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 관계를 맺어서 정말 이 K-방산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제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말씀드리겠습니다.

K-방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혁신위원회를 제가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실에서는 방산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24시간 야전을 놓고 앞으로 우리의 삶의 먹거리인, 삶의 새로운 먹거리 성장동력인 K-방산이 주력이 되겠다.

향후 한 5년, 10년까지는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우리한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마는 앞으로 R&D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선진국이었던, 제국이었던 나라들은 전부 다 기술 선도 국가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술 선도를 하기 위해서는 R&D 투자를 대폭 더 확대해서, 지금 방위사업청이 R&D와 사업 이 두 가지 양 바퀴로 가고 있는데 R&D 분야에 우리가 집중과 선택을 앞으로 더 해야 된다. 그래서 K-방산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조직에 대한 확대 개편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겠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황명선 위원 19일, 이번주 토요일 되면 채 해병 순직 2주기가 됩니다.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 제가 해병대 출신인데요. 선배로서 지금도 생각만 하면 분노와 울분이 아주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건입니다.

19일, 해병대 주관으로 포항에서 추모식이 있는데 후보자님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토요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황명선 위원 채 해병 순직이나 수사 외압에 대해서 아직 정부 차원의 사과가 제대로 없었어요, 전 정권 일이지만. 하지만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만큼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과를 통해 조금이나마 상처를 위로해 드리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지금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런 여러 가지가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명선 위원 그리고 지금 해병대 부대에서 추모식을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너무 큰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후보자가 장관 되시면 국방부 차원에서 직접 하시는 게 저는 맞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만약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군 유희부지와 관련해 군과 시민들과 국민들과 상생하는 모델을 좀 발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에는 유희부지가 굉장히 많아요. 어찌됐든 간에 재산권에 대한 침해, 교통 불편, 지역 개발, 소음 피해 등등 많이 있을 텐데, 후보자님 지역구에도 배봉산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40년 넘는 지역 숙원사업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황명선 위원 이래서 군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협력관계를 통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국민주권정부의 새로운 모델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국방부 소유의 유희부지가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시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민공원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적극적으로 활용 계획들을 유희부지를 좀 민과 우리 군이 함께 거버넌스 형태로 발전시켜 가

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우리 군의 작전성 검토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네트워크 정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선 위원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라는 거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위원장 성일종 황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후보자님, 오전 질의에서 제가 재산 증식된 것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예금, 채권, 펀드만 거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23년 합참의장후보자 청문회 시에 찰나의 시간이라도 우리 군의 주요 요직자가 주식창을 보는 순간 그 자체가 안보의 공백이고 사각지대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후보자께서 국세청을 통해서 종합된 자료를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보면, PPT를 보겠습니다. 2020년, 2021년, 2023년, 2024년 귀속년도에 각각 배당소득이 발생했고 그 4년간의 총액이 1억 7000만 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한 겁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 내역에는 주식거래 내역이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혹시 이것은 신고 후에 특정 주식을 사고 팔아서 재산신고 하는 그 기간에는 표시가 안 되게 예금으로 돌렸다가 다시 시세차익을 남기고 중간에 주식을 팔아 버리는 그러한 허점을 이용해서 혹시 주식거래 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저는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제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재주도 없고요. 이런 이재 부분에 제가 관심이 많았더라면 아마 부동산을 사고 팔고 더 많은 재산적 이득을 취했을 겁니다.

예컨대 제 지역구예, 청량리역 앞에 쓰는 사무실이 경매로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뒤에 GTX-B·C가 지나가면서 3배, 4배가 튼 적이 있습니다. 오른 적이 있는데 그걸 앞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우선권이 저한테 있는데, 매매가 아니고 경매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 매입을 앓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썬병입니다.

○강선영 위원 후보자가 17년 의정생활을 하면서 그러지 않았겠지만 혹시 이러한 주식거래 의혹이, 공직자 윤리법상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말씀처럼 찰나의 시간이라도 주식창을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전에 말씀하신 병적기록부와 주식거래 내역이 있다면 그것 자료 제출을 좀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성일종 자료 요청입니까?

○강선영 위원 예, 주식거래 내역과 병적기록부.

○위원장 성일종 질의하시지요. 제가 이따 정리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다음에 장관후보자님 안보관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18대부터 14년간 국방위에서 발언한 것이 약 980건 되는데 주요 발언을 다 발췌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2018년에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

요하다. 상황이 변하더라도 안보의 가치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년에는 '전 작권을 가지고 와도 우리 군의 작전능력이 충분하다'. 22년에는 '평화는 강력한 힘과 외교로 지키는 것이다', '군은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한다' 등 말씀하시고 또 '북한 애들이 탄도미사일을 쏘았을 때는 우리도 비례성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대략 50~150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안보는 의지와 능력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의 의지는 의심할 바가 없지만 만약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우리 군의 비례성 원칙에 상응하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이걸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서 실질적으로 무기체계를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해군본부가 독도방어훈련을 가상국 도발훈련이라고 고쳐 부른 것에 대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현상'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육해군 합동훈련으로 강화하라고 하시면서 이는 독도방어훈련을 강화하라는 뜻인데, 우리 군이 영토와 국익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니까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강선영 위원 생각 변함 없으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강선영 위원 그렇다면 중국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지요?

중국은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18년부터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3개의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해당 구조물에 접근하자 해경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항행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3일 날 항행금지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푸젠함을 포함한 중국 함대가 6일 동안이나 군사훈련을 해서 내해화하기 위한 서해공정 의도가 충분한데요. 아까 일본에 대해서도 독도방어훈련이라고 명시하고 훈련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이번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 영토와 국익을 저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상호 비례성 원칙에 입각해서 대등한 해상 기동훈련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비례성 원칙에 의해서 훈련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이곳에서 우리의 함정이나 훈련하는 걸 방해한다면 충분히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시겠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당연히 해야지요.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패널을 들어 보이며)

후보자님, 혹시 이런 것 보신 적 있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처음 봤습니다.

○박선원 위원 이게 뭐냐면 노상원이 2016년에 김용현 당시 작전본부장하고 함께 북과

공작을 하면서 준비했던 폭탄입니다. 이 폭탄은 자폭용입니다. 여기에 위성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HID 요원에게 이 위성전화를 겁니다. 위성전화를 걸어서 신호를 받으면, 이 기폭화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증폭을 시켜 줘 가지고 이 폭탄을 폭파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노상원과 김용현은 정보사령관 또 한 사람은 작전본부장이면서 2016년부터 그야말로 영화에 나올 법한 일, 그런 공작 계획을 서슴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노상원 수첩에 보면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5000~1만 명을 수거하고 그중의 일부는 실미도로 이동해서 시한폭탄을 활용해서 죽인다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정보사령부에 관련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찰·감사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방첩사 문제입니다. 드론작전사령부가 백령도에 무인기, 연천군 군남면에 떨어진 무인기 이것 조사해야 되는데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합동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방첩사에서 작성했습니다. 그 작성했던 사람들이 이 모 대령, 송 모 중령, 우 모 중령입니다.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PT 화면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방첩사는 12·3 내란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으로 특정 지역 출신 차별, 군 내 특정 지역 사람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거예요. 방첩사 안에 있는 특정 지역 장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람들입니다. 김 모 대령, 박 모, 김 모 중령. 실명을 원하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 정부 근무자 차별, 문재인 정부 때 근무자 차별, 과거 정부 주요 보직자, 민주당 관련 블랙리스트, 장관후보자님과 관련 있는 분들 차별 대상으로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박 모, 나, 이, 진 대령 등입니다.

국회의원 사찰, 국방위·정보위·법사위 위원들 주로 사찰했는데 김 모 준장, 유 모 대령 등입니다. 실명으로 제가 후보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첩사 이경민인가요, 아직 직무대행으로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수사기관이 들어가면 지하에 있는 서버 하나만 갖다 보여 주고 다시 돌려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방첩사에는 복수의 서버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자료를 지금 숨겨 놓고 증거인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경민 직무배제 반드시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작권 가져오면 21조 운운한 분이 계셨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전 정부에서 2021년까지 완전작전능력 평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2022년 3월 달에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FOC라고 그러지요, 검증을 하고 그다음 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 점검 단계, FOC에서 FMC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걸 3년 동안 제자리걸음하고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전작권 새로 가져오는 데 이미 기계화된 중기계화, 충분히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

고 미군 쪽에서도 원하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미 간의 전작권 전환할 때 기본원칙이 뭐냐면 설령 일정 부분에서 역량이 부족하면 미군이 일정 기간 동안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지원해 주겠다. 그것을 브리징 캐퍼빌리티(bridging capability)라고 합니다. 가교적 역량 제공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제공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3년 내내 제자리걸음에 후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작권 이야기만 나오면 21조다, 100조다, 주한미군 빠져나간다, 온갖 소리 다하고 있어요. 미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이 한국군을 지휘하는 것, 전작권이 돌아온다고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합참의장이나 구성군 사령관이 미군을 지휘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박선원 위원 전작권은 우리 군에 대한 전작권일 뿐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홀가분해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작권을 신양시 하면서 우리 국방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때로는 전방은 다 미군한테 맡겨 버리고, 북한놈들이 쳐들어오든 말든 다 맡겨 버리고, 특수부대 동원해서 국회로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전작권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지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님께서 21조니 100조니 이런 말에, 기본 입장이 워낙 튼튼하게 서 계신 분이니까 제가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말 않겠습니다만 기본 입장 이미 잘 밝혀 주신 대로 알고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윤상현 위원님 질의 말씀에 전작권 전환에 국방비가 21조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어떤 추정에 의해서 제가 일부분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군은 이미 전작권을 전제로 어떤 소요 예산을 산출한 적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조건 1·2 충족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의 스텝대로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전작권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 국방부나 합참은 지금 당장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지금 현재 제가 장관으로 취임을 아직 안 해서, 취임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상현 위원 오히려 합참에서는 반대하고 있다고 계속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또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전작권의 조건 1·2의 평가는, 조건 1은 한국군의 핵심전력 능력이고 조건 2는 북한 대응에 대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인데 1·2의 능력에 대해서 평가는 이미 마쳤습니다. 마쳤고 이걸 평가해서 SCM의 검증 단계로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평가와 검증 단계가 어떻게 절차화되고 있는가. 일부에서는 상당한 진

척이 있다, 일부에서는 아직 평가가 이르다, 어느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마는 어쨌든 우리 군이 2006년 이후에, 전작권 전환 합의 이후에 엄청난 노력과 전략 자산과 킬체인·KAMD·KMPR 3축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은 상당한 진척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해 보고 있는 겁니다.

○**윤상현 위원** 후보자님, 저도 전작권을 빨리 회수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능력이 될 때, 우리 스스로 능력이 될 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자꾸 전작권 환수하겠다, 환수하겠다 하면 미 국방부에 있는 피트 헤그세스나 엘브리지 콜비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 잘됐다.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우리의 협상력이 떨어질 경우를 가정한 거고요.

내셔널 디펜스 오서러제이션 액트(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아시지요, 국방수권법안?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윤상현 위원** 국방수권법안은 상원 군사위에, 아마 제가 알기로 로저 위커가 군사위원장입니다. 거기서 최근에 뭐라고 통과했나. 주한미군 철수, 전작권 전환 함부로 하지 마라. 국방부장관이 의회에 대해서 미 국익이 훼손되지 않다는 것을 확신을 준 다음에 실행하라 이렇게까지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까. 단지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을 둔다, 그래서 한미 연합방위세력을 해서 북한을 억제한다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 1기 때 아마 한 5년 전일 거예요. 2019년도 국방수권법안 보십시오. 거기에 항상 조건을 달았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적어도 몇 가지 평가조건이 있다. 미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의 국방에 있어서 어떤 능력이 된다 등등등의 조건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에서 그건 다 없애고 2만 8500명만 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 여야, 지금 로저 위커가 공화당 군사위원장입니다. 거기서 이런 조항, 소위 말해서 주한미군 철수나 전작권 전환은 미국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장관이 의회로 하여금 미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때 해야 된다 이런 조건까지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반대한 사람? 제가 알기로 상원 군사위원회 상원 위원들이 한 스물일곱여덟 명 될 겁니다. 반대한 사람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딱 한 사람입니다. 전부 찬성했습니다, 한 사람 빼고. 이 정도로 미국 의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불안하게 보는 겁니다.

미 국방부는 다르겠지요. 다른데 저희가 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저도 전작권 전환 빨리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 있을 때, 적어도 북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갖추는 때,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갖추는 때, 그리고 안보환경이 됐을 때,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후보자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한미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작권이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주둔은 불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윤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위원** 오전에 제가 생각하는 군 민주화, 군 문민화 방향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중에서도 국방부의 실질적 문민 인사 강화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의사결정론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차관이나 정책실장, 전략실장 또 국방부의 여러 산하기관의 기관장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군 출신입니다. 또 거의 대부분 육군 출신입니다. 육사 출신입니다. 지금 이러한 국방부 현실을 보면 문민 기반 조성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인사 변화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국방부 장차관·실장급 그리고 방위사업청장·병무청장 등 국방부 산하기관장의 군 전역 후 2~3년간 임용을 제한해서 문민 통제를 강화하는 국방혁신 입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동의합니다.

○**백선희 위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의 투명성 강화 문제인데요.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국방위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자료를 잘 주지 않더라고요. 군사기밀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었고 또 우스갯소리로 국방부는 점심식단표까지 군사기밀이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요. 폐쇄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또 이런 경험을 후보자께서도 많이 하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나 여기의 국방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에 대한 이해, 군사전략이라든지 전력소요라든지 또 군병력 감소에 따른 군 구조 개편 등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알아야 사실은 예산도 잘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정책 제안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에서는 통제 기능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권력이 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법부에서 행정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쪽 자리에 가서서도 ‘이것 군사기밀이다’라고 해서 정보를 잘 안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경험을 하셨으니까. 저희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면 또 입법부가 국방부를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방부장관하고 합참의장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12·3 불법 내란, 계엄을 경험하면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이었지요. 국정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또 보면서 육군참모총장인지 의심스럽게 생각될 정도로 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청문회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후보자께서 군 인사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육해공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입장을 잠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각군 총장의 청문회는 군의 책임성과 준비성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총장이 될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차원에서 필요성은 대두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밟은 다음에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고 채 해병 순직 2주기가 다가오면서 군 사법권력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제야 채 해병 순직사건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수사의 핵심 피의자 중 하나인 김동혁 전 검찰단장을 2년 만에 직무정지했습니다. 만약에 군검찰단이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때처럼 군 사법권력을 오남용하더라도 국방부장관의 인사 조치를 제외하고는 견제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시스템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위공직자인 장성급 장교를 제외하면 군판사와 군검사는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되더라도 일반 판사 및 검사와 달리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고 국방부검찰단장이 범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군판사 및 군검사의 군 사법권력 오남용에도 제3의 기관에 의해 견제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6월에 군판사 및 군검사를 고위공직자에 포함해서 이들 또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도록 해서 무소불위의 군사법부를 견제하도록 하는 공수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러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장관이 되면 이 부분을 주의 깊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백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우리 군은 기본적으로 감시·감독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컨대 방첩사가 있고 조사본부가 있고 감찰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제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느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 역할이 있기 때문에 촘촘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안에 대해서 저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시에 국방부가 국회 자료제출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대면과 서면…… 저 역시 먼저 여야를 넘어서 특히 야당 위원님과 소통을 하는 것을 제2원칙으로 삼고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자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중 백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법을 위반해서 국가안보를 훼손시키거나 훼손시키려는 시도를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부승찬 위원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결정은 주권적 영역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다시 한번 말해 주십시오.

○부승찬 위원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적 영역이라고 볼 수 있지요? 정전협정 위반이라도,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런데 법을 만들어 놔어요. 그 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방위사업법에 근거했을 때 우리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훈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국방발전업무훈령.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부승찬 위원 전력화로 사용할 수 없는 무기체계를 보내서 국가안보를 위해하거나 위해하려는 시도 이걸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부승찬 위원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특히나 군에서는 중요하지요. 맞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이런 부분 그리고 만일 합참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그건 합참조차도 일반이적죄에 공모하는 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전체 자체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이 부분 잘 살펴봐 주시고요.

다른 질문 하나 드려 볼게요.

정책이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떨어지면 변화를 도모하는 게 맞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당연히 진단과 검증을 거친 다음에 변화를 줘야지요.

○부승찬 위원 그냥 군인이나 일반 교육기관은 본질적으로 중장기적인 미래비전과 일관된 리더십 아래 운영돼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부승찬 위원 슬라이드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방위대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8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61대 학교장까지 존재해요. 공군사관학교 57대, 해군사관학교 61대, 61명이 바뀐 거지요. 일본 방위대 같은 경우는 52년…… 물론 민간인이 합니다마는 10대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육해공, 간호사관학교장 최근 10년 평균 임기를 보세요. 6개월, 30개월, 8개월, 18개월, 5개월, 6개월. 해군사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간호사관학교가 2년을 지켜요.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여기에 왜 장군을 갖다 앉힙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정책을 운영하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 아니예요? 여기서 어떻게 중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교육 철학을 주입시키겠습니까?

다음 장.

그래서 미국 육해공군 사관학교장 평균 임기를 봤어요. 육군 같은 경우는 4년 정도, 공군은 3년 7개월, 해군은 4년 6개월 정도 됩니다. 현역 군인들입니다.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장.

영국 보십시오. 3년, 2년 7개월, 2년 5개월. 우리 3군 사관학교는요 그냥 장군들이 가서 놀다 떠나는 자리예요. 임기만 봤을 때 5개월, 6개월짜리가 허다해, 한 기수가 들어왔는데 입학식을 보고 졸업식도 못 보고 떠나, 이런 교육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문이 고요.

제가 후보자님의 발언 내용을 좀 찾아봤어요. ‘미래상 정립이 국가안보정책의 핵심이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미래상의 중심에는 우리 생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의 미래상에는, 국가안보의 미래상에는. 그런데 이렇게 줄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사관학교는 국가의 호국간성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특히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이 문제 역시 제가 장관이 되면 각군 사관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시스템, 양성 과정, 교수진을 포함해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고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수고하십니다.

9·19 군사합의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후보자께서는 첫 출근 당일 날 인터뷰에서 9·19 군사합의 원점 재검토를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임종득 위원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고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묻고 싶습니다. 24년도에 발표한 효력 정지에 대한 검토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9·19 군사합의를 새로운 합의로 체결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어느 쪽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제가 말씀한 취지는,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최초의 군사적 합의라서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의미가 있는 합의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낮은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서 높은 단계까지 가야, 그 말은 서로 간에 상호 신뢰가 구축이 돼야 이게 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서.....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후보 당시에든 9·19 군사합의 복원을 강조하셨는데 혹시 대통령으로부터 지침을 받은 게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전혀 없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9·19 군사합의를 협의하는 과정과 이행하는 과정에서 후보께서는 국방위원장을 하였고 국방위원으로 계셨습니다. 누구보다도 9·19 군사합의를 잘 알고 계세요. 문제점도 잘 알고 계시는 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참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부임도하시기 전에 이것을 원점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다음.

첫째, 절차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합참의 검토들이 있고 이것을 국방부에 보고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것이 국방부에서 묵살됩니다. 그리고 육해공군 본부와 사전 유기적인 협조 없이 국방부의 일부 인원에 의해서 이것이 추진됩니다. 그리고 GP 철수와 관련된 것은 DMZ 작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엔사하고도 협조 없이 허위 평가서를 제출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두 번째입니다. 내용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실 우리는 공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방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방자의 유리점은 싸울 장소를 미리 선정해서 거기에 준비하고 거기서 훈련을 해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9·19 합의에는 군사분계선 5km 이내에는 훈련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연대급 이상 훈련은 못 하고 사격도 못 합니다. 이게 많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서해 덕적도 이북부터 초도 이남까지 수역에 사격과 훈련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백령도라든가 도서에 있던 많은 병력들이 훈련을 위해서 내륙으로 들어와야 돼서 비용도 많이 들었고 실제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사분계선 상공에 모든 기종의 비행 금지를 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우세해 있는 우리 정부 자산의 운용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남북 간 각 11개 GP 시범 철수를 동수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북 간에 GP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나거든요. 동수로 하면 우리가 불리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위원님, 북한은 GOP 경계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어느 일방이 손해다 이익이다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임종득 위원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수로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동수로 했을 때 우리는 GP에 많은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북한은 포병 사격, 해안포 개방 등 기간 동안에 약 4500여 건의 합의 위반이 있었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4050.

○임종득 위원 이걸 좀 다 다르더라고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아, 그래요? 예.

○임종득 위원 그런데 우리는 거의 위반 안 했잖아요. 이행 과정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GP 시범 철수 간에 상호 현장 부실 점검도 문제가 됐습니다. 감사원에서 이걸 지적하고 있고 6명을 지금 수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개들은 화력쇼를 해서 다 파괴했다고 그랬는데 2주 만에 다 복구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파괴한 것 지하까지 완전히 드러내 가지고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33년이 돼도 들어갈까 말까, 예산도 반영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살머리고지 남북 공동 유해발굴 합의는 했는데 우리만 제거했습니다, 지뢰를. 그다음에 한강 하구의 해도를 북측에 공유를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게 나중에 비밀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 세부적인 내용을 아직 보고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이걸 다시 검토하고 복구하겠다,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위원님이 걱정하는 바를 잘 알겠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어느 일방이 손해고 어느 일방이 이익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군사 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상호 신뢰 구축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고려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위원장 성일종 제가 좀 묻겠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2018년도 12월에 후보자님께서 이데일리하고 기자회견을 하셨거든요. ‘전작권이 환수되더라도 우리 방위태세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왜 그런가 하니 전작권이 전환된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미연합방위체계에 의해서 더 공고히 되고 전작권이 됨과 동시에 구성군사령부가 구성이 됩니다. 구성군사령부는 연지사, 연공사, 연해사, 연특사, 연방사 6개 중에서 이미 세 군데는 완료가 됐고 내년엔 한 군데, 27년에 한 군데, 28년에 한 군데, 앞으로 3년 되면 6개의 구성군사령부가 구성이 돼서 한미의 방위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더 끈끈하고 더 유기적으로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아까 말씀을 주실 때 평화는 힘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 그리고 대화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100% 맞는 말씀이에요.

NATO가 몇 개 나라가 연합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32개 나라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그 NATO 사령관이, 어느 나라가 지금 현재 사령관을 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독일에서 사령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미군이 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전쟁을 다국적 군들이 전쟁을 할 때 사령관을 누가 했지요? 미군이 했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위원장 성일종 그런데 전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작전권을 하면서

같은, 동급의 장성들이 있고 지금 현재는 미군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일미군기지를 비롯해서 괌, 하와이, 본토까지 이 지원세력들을 받을 때 한국군이 전작권에 대한 사령관을 맡았을 때 커뮤니케이션이나 여러 가지 했었을 때 이것이 순조로울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후보자께서 힘의 우위에 의한 평화도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후방기지에서 유사시에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될 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

두 번째, 감시자산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위원장 성일종 지금 우리 군사위성이 몇 개 정도 가동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2개입니다. 모르실 수 있습니다. 2개입니다. 이스라엘이 몇 개 되고 있느냐 하면 7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에서 우리가 봤는데 7개 가지고 도저히 안 돼요.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의 감시자산, 위성을 비롯한 통신, 모든 감시자산을 동원해서 전쟁을 치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란 전쟁을 하면서 쓴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작권이 전환되면 방공이나 연합체계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

○위원장 성일종 아닙니다. 그 의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할 때 65억 달러가 들었다고 대사하고 무관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8조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이 엄청난 감시자산과 모든 정보자산을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군사위성이 지금 2개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7개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가 잘못 서둘러서 전시작전권을 가져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과연 전쟁에 대한 준비가 잘 될 수 있을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자산 주는 것을 중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쿠르스크주를 다 잃어버렸어요. 거의 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두 번째로 고민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전시작전권을 한국한테, 우리가 가져오고 그렇게 되면, 미군이라고 하는 것은 대북에 억제력도 있지만 주변국에 대한 견제의 기능도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양안 문제가 불거졌을 때 미군의 유연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주한미군이 저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북에 대한 여러 억제 기능으로서의 힘의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전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단순한 우리의 반미, 민족주의의 감성팔이 문제가 아니다, 이것. 자주권 얘기하고, 누구는 자주권을 더 강력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핵을 갖고 있는 영국도 프랑스도 동맹을 맺고 또 이 핵을 갖고 있는 나라조차도 연합해서 지금 사령관을 미군한테 맡겼는데, 그러면 이런 나라들도 자주권이 없어서 그렇겠

습니까?

이것은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장관에 취임을 하시면 아주 다각적인, 이게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관련되고 국제역학의 정치학적으로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보셔 가지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후보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실 것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전작권이 전환이 된다고 그래서 한미연합체계가 약화되거나 무력화되지는 않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방력은 네 가지의 DIME 요소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국방력 뿐만 아니라 외교·정보·국방·경제 네 가지 DIME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력 10위에 국방력 5위입니다. 5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오고 싶다 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한미가 합의하에 조건 1·2·3이 충족된 절차와 단계, 여러 가지 전략자산의 구비·평가·검증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사람이 어느 나라가 일방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조건에 서로가 맞추도록 그동안 우리 군이 피나는 노력을 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지금 북한이 핵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비대칭 전력에서는 게임이 안 됩니다. 미군의 핵의 힘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후보자님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한기호 위원 5분씩은 해야 됩니다.

○위원장 성일종 5분씩, 알겠습니다.

백선희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백선희 위원 아닙니다. 저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예.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부승찬 위원 아니, 그것 합의가 안 된 건데.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두 분께서……

○부승찬 위원 그래도 시간은 맞춰야지요.

○한기호 위원 합의해 보세요. 그러면 7분씩 해요.

○부승찬 위원 어느 한 사람이…… 1분씩 하시지요, 그러면.

○한기호 위원 7분씩 해요, 그러면.

○김병주 위원 맨날 3분 주더니 오늘은 또……

○부승찬 위원 아니, 저희 야당일 때는 더 달라고 하니까 주지도 않고……

○한기호 위원 언제 더 안 줬어요? 다 줬지.

○김병주 위원 안 줬지. 7·5·3 맨날 했지.

○임종득 위원 시간은 넉넉하게 줬던 것 같은데.

○한기호 위원 아니, 시간이 충분한데……

○강대식 위원 3분, 3분 계속하면 되잖아요.

○부승찬 위원 돌려요, 3분.

○임종득 위원 잘리니까 그렇지.

○강대식 위원 3분, 3분 계속하면 되잖아요.

○한기호 위원 3분 가지고는 너무 짧아서 안 돼요.

○부승찬 위원 아니, 기다리는 분도 계시니까 빨리 돌리는……

○한기호 위원 5분씩 하면 돼요.

○부승찬 위원 5분은 너무 길어.

○강대식 위원 3분 하고 또 3분 하고 또 3분 하고 계속하면 되잖아.

○부승찬 위원 맞아요. 3분씩, 또 재질의하는 분들 할 수 있게.

○위원장 성일종 알겠습니다.

양 간사님이 합의하셨으니, 3분씩 하자고 그러니까 3분 하고 부족하면 제가 조금 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장관님, 64년 만에 순수 민간인 장관후보자로 되셨는데 그 64년 전에는 누가 장관 했지요, 순수 민간인이?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5·16 전에 내각제 때……

○한기호 위원 누구신지 아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내각제 때……

○한기호 위원 현석호 장관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러면 장관을 한 번 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두 번 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9대 장관, 11대 장관 했지요. 9대 장관 할 때는 19일을 하고 11대 장관 할 때는 4개월을 했어요.

그런데 왜 9대 때 19일밖에 못 했지요? 내용은 아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 내용까지 제가 잘 모릅니다.

○한기호 위원 확인해 보세요. 이게 실제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 3분 밖에 안 주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을 못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초 국방부장관은 누구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

○한기호 위원 아니, 장관 하실 분이 최초 국방부장관이 누구인지도 모르세요?

○부승찬 위원 어떻게 알아.

○한기호 위원 그걸 왜 모릅니까?

○부승찬 위원 그걸 어떻게 압니까?

○한기호 위원 삼척동자도 알지.

철기 이범석 장군이십니다. 이범석 장군은 1910년도에 중국에서 망명해서 운남 육군강무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신흥무관학교에서 교관을 하고 청산리전투에서 김좌진 장군과 함께 싸워서 승리했고 광복 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 광복군 참모장을 하시고 2지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48년도에 초대 장관만 한 게 아니라 국무총리를 같이 겸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장관의 초대 장관인데 국방부에서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제가 이분 추모식 할 때마다 매년 갑니다.

장관후보자님은 가 보신 적 없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제가 간 적이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군을 태동시키신 분이네요. 이분에 대해서 기념사업회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시간이 이렇게…… 3분 주면 안 되는데.

북한의 군 지휘체계를 아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군 지휘체계는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정확히 아셔야지요, 적인데.

북한에는 국방상이 있고 총참모부장이 있고 군사위원장이 있지요. 그러면 국방상은 누구입니까? 총참모부장은 누구입니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김관진 장관이 있을 때 장관 하면서 누구 사진을 벽에다 붙여 놓고 있었지요? 김정일 사진을 붙여 놓고 있었지요. 장관님은 누구 사진 붙여 놓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것 고려 아직 안 해 봤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심각하게 적에 대해서 생각을 덜 하셨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북한은 군사위원회가 있어서, 이 위원회가 당 조직인데 이 당 조직의 우두머리가 바로 김정은입니다. 그래서 국방상은 사실은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총참모부장이 작전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입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상대해야 할 적의 수장은 김정은입니다.

그다음에 적을 알아야, 손자병법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원을 하시는 동안에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협력단은 어떡하실 거예요? 제가 먼저 김선호 전 대행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회협력단을 해체해라, 왜 국회협력단이 국회에도 들어오지 못하는데 계속 유지를 하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보지도 제대로 쌓지 못하고 실제 활동도 못 하고 이것 하는데 뭐 하러 그걸 운용하느냐, 해체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어떠냐? 어떻게 들어옵니까? 의원실에 들어오는 것만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한 번 들어오면 세 개 의원실 외에는 못 들어가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디 대기합니까? 소통관 카페나 휴게실로 이동해서, 휴게실에서 기다리고 하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원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다시 국회에서 근무하게 한다는 겁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한기호 위원 그것 마음대로 하십니까, 장관님 마음대로?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역할도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무처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협의가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데?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저기 민주당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성일종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 위원 후보자님……

○위원장 성일종 잠깐만요, 황희 위원님.

추가적으로 시간을 쓰시고 싶으시면 제가 지금 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황희 위원 유럽에 보면 미국에 무임승차를 쭉 해 왔던 유럽의 방위력이 이제는 스스로 자체 방위력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에 직면했어요. 한 10년 정도 걸린다 그래요.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후보자께서도 아시고.

또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때 의회에 예산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렇습니다.

○황희 위원 자국의 국익에 의해서 승인을 받지 않겠습니까? 한반도에 시혜적 의미에서 주둔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렇지요.

○황희 위원 그런 것도 후보자님 명심하시고 한미 관계에 있어서, 동맹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협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국가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군과 민간 간의 관계가 아주 유연하고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공항 동측 활주로 보면 각도가 변경됐어요. 그 이유가 제2롯데월드 신축하면서 각도가 변경됐습니다. 당연히 각도가 변경된 새로운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즉시 묶였고 반대편에 이동된 그만큼의 공간이 해제가 된 겁니다. 2구역에서 6구역으로 해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현안을 둘러싸고 제2롯데, 기업은 자기 이해관계가 실현됐어요. 지을 수 있었잖아요. 군도 자기 이해관계가 실현됐습니다, 각도가 이동돼서 새롭게 규제지역을 즉시 편입했으니까.

그런데 시민만 여전히 10년째 자기 권리를 못 찾고 있어요. 반대편으로 이동했으면 그게 해제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전 정부 국방부장관도 ‘이것은 즉시 해제돼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10년째 안 되고 있고, 기업과 정부는 모두 자기 이

익을 실현했는데 오히려 보호받아야 될 주권자 시민의 권리만 지금 10년째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방부도 지금 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은 7월까지 재건축 관련된 용역도 하고 사업승인도 해야 되는데 이게 연말까지 가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왕 국방부가 해 주기로 한 것은 좀 즉각 검토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서울공항 용도를 한번 제가 전임 국방부장관한테 여쭙봤어요. 그랬더니 인천공항을 잠재적으로 대체하는 그런 공간이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해외순방 다니면서 이용하는 그런 겁니다. 물론 당연히 공항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군사적 의미의 이런 것도 좀 추가됐겠지요.

그런데 도심 중앙에 있는 서울공항 이전도 사실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공항은 2010년도 제2롯데월드에 의해서 2.71도의 각도를 틀어서 555m의 제2롯데월드를 친기업적으로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지상에서도 도로 안전이 있듯이, 거리 있듯이 하늘에도 제1구역부터 6구역까지 ICAO 규정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1구역은 건축물이 들어설 수가 없는 곳이고요. 2, 3, 4, 5, 6은 고도제한에 따라서 6구역까지 신축을 할 수 있고 고도제한이 완화된 지역도 있고 높낮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약 14년, 15년경에 그 당시 성남시민들한테 언제까지 될 하겠다, 제가 이런 기억이 납니다. 장관으로 취임을 한다면 서민 생활에 또 주거환경을 갖고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살펴보겠습니다.

○**황희 위원** 기업하고 정부는 다 자기 이해가 실현됐잖아요. 가장 보호받아야 될 시민의 권리가 우선입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비행안전구역이 설정이 돼 있거든요.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런 혜택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희 위원** 예.

○**위원장 성일종** 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전작권 회수 관련해서는 저는 국민께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올바른 정보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3 내란에서 사령관 3명이, 수방사령관 등등이 자기 판단을 하지 않았습시다.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의 도구가 돼 버렸습니다. 군의 무책임, 무능을 그대로 보여준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전작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했을 때가 바로, 유사한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청천강 전투, 현리 전투에서 우리 군이 치욕적인 패배를 했습니다. 당시 지휘체계가 아무런 역할,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시다. 심지어 당시의 청천강 전투에서 홀로 경비행기를 타고 부하를 남겨두고 도주 했던 유재홍 중장의 책임이 큼니다. 그는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후에 승진하고 온갖 훈포장을 다 받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2004년이지요. 전작권 회수 논의가 활발해지니까 이 사람은 예비역 72

명 장성들과 함께 반대 움직임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책임을, 지휘 책임을 다하지 않아 놓고 전작권을 유엔군한테 넘겨 놓은 장본인이 전작권 회수에 대한 반대 움직임 여론을 주도하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작권 회수한다는 것이 마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라고 국민들을 이렇게 잘못 이끌어 가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전작권 회수에 대해서는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장관후보자에게서 잘 아시겠지만 IOC, FOC 2단계까지 이미 조건부 통과를 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제대로 훈련을 못 마친 것도 있지만 조건부 통과를 다 하고 3단계 FMC 평가만 남겨 놓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전작권 회수에 대한, 전시에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는 상부 우두머리부터 그런 강한 책임감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 미리 우리 안보가 위험하다? 자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쉽게 내란에 휩쓸리는 내란의 도구가 돼 버린 겁니다. 무능한 군인, 정말 뭐 해야 될지를 모르는 군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후보자에게서, 저는 그 소신을 높이 지지해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3단계까지 잘 설계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작권은 전작권이고 연합방위태세는 연합방위태세라는 확고한 소신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저출산이 심각해서 2043년이 되면 군이 33만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게 되면 향후 약 10만 명 규모, 10개 사단이 해체되면 지금 있는 이 무기 제대로 쓰지도 못해요. 운용할, 감당할 요원이, 사람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번에도 구삼회 준장 보고 왜 서울 안 들어왔냐 그러니까 인력이 없어서 탱크 운용 못 한다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웃기는 거지요.

공약하신 대로 장병 10개월 징집병 또는 36개월 전투부사관 중 선택하도록 입영제도를 하겠다는 선택형 모병제 잘 설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우리 군이 병력이 감소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마는 최소한 PMC와 군무원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50만 군은 갖춰야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군이 기술집약형 군으로 가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수준이 되려면 최소한 기술집약형 군인들이 약 4만 명 이상은 확보가 돼야 그런 조건도 평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후보자님, 전작권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이 많으신데 장관이 되신다면 앞으로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주요 충족 여부 및 검증 절차, 진행 경과 등에 대해서 국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한 보고 및 설명 과정을, 로드맵이라든가 아니면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제가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다음에 제가 위원님하고……

○**강대식 위원** 예.

그리고 후보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6·25전쟁 때 소년·소녀병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누구보다도?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유승민 의원이 하도 많이 해서 제가 잘……

○강대식 위원 저도 21대 22대……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위원님도 많이 하셨고요.

○강대식 위원 했는데 기재부의 어떤 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그 대신에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 기념비 건립이라든지 장병 정신전력교육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전쟁기념관 내에 소년·소녀병 관련 전시공간 마련이라든지 추모행사를 2작사로 승격해서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장관 되시면 꼭 좀 관심 있게, 유념 있게 잘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위원님, 이름 없이 꽃도 못 피고 사라진 소년·소녀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선양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의 유가족한테도 어떤 제도적 뒷받침 할 수 있는 여건하에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감사합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문제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알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굳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뿐 아니라 광주공항, 수원공항 모두 맥을 같이 하는 군공항 문제입니다.

이게 특히 발빠르게 갔던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총 16개 단계 중에 지금 13단계에서 딱 묶여 있습니다. 이게 기부대양여이다 보니까 SPC를 구성해야 되는데 대출이자만 하더라도 사업기간을 전부 다 생각하면 약 한 10조 정도 재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반 지자체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능력에 부딪혀 있어 가지고 어떤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특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구조적인 금융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보면 기부대양여가 제 원칙이고 또 지금 수원공항도 있고 광주공항도 있고 그런데 사실 대구공항이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로 지자체 간에 협의가 잘됐고 모델 케이스입니다. 롤모델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내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협조해서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후보자께서 반드시 국정과제에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TF 구성 시에 수원이나 광주나 대구가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13번 단계에서 멈춘 것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건설 경기가 지금 약간 하향 추세여서 그렇니까?

○강대식 위원 그 내용은 아닙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강대식 위원 예, SPC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민간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 못 하는 부분은 기부와 양여의 차이점, 차액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의 금융 이자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 보니까 일반 지자체가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대통령께서도 TF팀을 구성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됐다 해서 벌써 수원 쪽에서는 이것을 꼭 TF에 넣어 달라는 건의까지 있었던 그런 상황이니까…… 광주 가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익으면 대구경북 공항 문제, 광주공항 문제, 수원공항 문제 이것 전부 다를 엮어서 TF팀에 엮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대구공항 문제는 사실상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의 숙원 사업이었고 또 기부대양여 방법의 롤모델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장관후보자님, 육사의 홍범도 홍상 윤석열 정부에서 이전하려고 하다가 반대에 많이 부딪힌 거 알고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얼마 전 발표를 보니까 이것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발표가 있었던 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국방부에서 그렇게 발표한 걸로 아는데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장관이 되셔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중의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국군의 뿌리를 바로 세우는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국군은 헌법 수호와 헌법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헌법전문에 보면 우리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김병주 위원 그래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라는 것은 군도 그 당시 임시정부에서 운용한 군이 독립군이고 나중의 광복군이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독립군과 광복군에서 뿌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이의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해방 이후의 뿌리를 찾는 그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범도 장군 홍상을 철거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지요.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이 뿌리에 대해 찾는 노력을 바로 해야 된다, 우리 군이 헌법 교육부터 이런 것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위원님 말씀을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특히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그때 공산주의 이력이 있다는, 공

산당에 가입했다는 이력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잘…… 그 당시 공산당과 지금은 다르고 또 그때 여건하고는 다른데도 그렇게 일치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홍범도기념사업회에서 홍범도 장군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서 8월 중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대단히 기대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면 장병들 정신교육이나 장병들에게 알리는 용으로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구요. 그래서 뿌리 찾는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헌법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봐요. 특히 이번에 12·3 내란도 헌법 정신을 위배한 거고 헌법을 위배한 건데 12·3 내란에 대한 교육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이 헌법 위반이다 이런 교육을요.

조금 시간을 주시지요.

12·3 내란에 대한 교육이 그러면 일부론자는……

아까 2분 주시던데 저쪽은?

○위원장 성일종 아니, 쓰시면 드릴게요.

○김병주 위원 행정실장님 확실히 하세요.

그래서 12·3 내란이 헌법에 위반되고 잘못됐다 이런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군에서 그런 교육을 제가 하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부 극우나 보수에서는 재판 중이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파면이 났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문만이라도 장병들에게, 그 판결문은……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판결문 정도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먼저 질문 주신 게 홍범도 장군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제복 입은 민주 시민인데요.

홍범도 장군은 거의 연세가 돌아가실 연세에 공산당을 가입한 것입니다. 본인이 개인적인 영달을 아마 했었더라면 젊은 나이에 해서 영세를 누렸을 것인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군인들은 제복 입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헌법과 또 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민 교육과 헌법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장관에 취임이 된다면 전문가들과 함께 이 분야도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렇게 해 보시고요.

지금 당면 과제 중의 하나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이 장군 인사인데 장군은 전반기 인사하고 후반기 인사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김병주 위원 그런데 전반기 인사를 하려고 했을 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에서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권한대행 체계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1분만 더 줄래요, 미안한데?

○위원장 성일종 6분 쓰네요.

드릴게요.

○김병주 위원 고마워요.

그래서 못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체가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복안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임명되면 바로, 긴급·긴급한 자리 있습니다. 대행을, 대리를 한다든가 오래된 보직은 빨리 교체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내란에 대해서 국방부 자체조사를 해서 내란 관련자들은 사실은 긴급이나 이런 게 잘못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반기에 인사를 10월이든 11월이든 좀 더 대대적으로 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제가 애로사항들을 들어 보니까 장군 적체가 많이 되고 임기 끝났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루즈해지고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는데 긴급한 자리는 조금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후보자님 혹시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장관이 되면 이 부분을 아주 깊이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한 것을 참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 6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장관후보자님,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방위비 분담에 대한 협상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말을 했다가 다시 번복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서 제가 이것은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전작권이 뭔지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전시작전통제권은 현재 미군이 단독으로 행사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상 전시지휘체계에 대한 군 출신이 아닌 분들은 지금 전시작전통제권의 행사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셔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평상시의 평시작전통제권은 현재 합참의장이 갖고 있고요. 데프콘3가 격상이 되고 나면 연합사로 이게 위임이 됩니다.

그러면 저기 연합사에 보시면 우측에 보시면 사령관, 부사령관, 한 합참의장이 있지요. 사령관은 미군입니다, 현재. 그렇게 되면 데프콘3가 되게 되면 각국의 미군과 한국군 자산들이 연합구성군을 형성해서 같이 그 밑에 지휘체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미군 8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한국에 파병될 다국적군들이 미 사령관에 들어가고요. 부사령관은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너무 잘 알 텐데 그러면 부사령관이 뭘 맡느냐? 현재 지작사라고 돼 있는 부대가 전시에 지구사로 창설되면서 부사령관이 직접 지휘를 합니다. 즉 연합사는 사령관이 미군이지만 부사령관이 한국군을 지휘하고요. 또 연합사에 편성되지 않은 부대는 한 합참의장에 의해서 수방사 등 일부 부대가 여기에 편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합사는 과연 연합사령관이 단독으로 행사하느냐? 아닙니다. 연합사는 한미군사위원회라고 하는 MCM과 그 위에 양국 국방부장관에 의한 한미 안보협의회의인 SCM에 의거해서 주요한 국면마다 양쪽의 합참의장과 장관을 통해서 양국 대통령의 통제를 받아서 부대를 지휘합니다.

마지막 구성 군사 일부와 다국적군들을 지휘하는 게 연합사령관이지만 연합사령관 말

고 부사령관이 한국군을 지휘하고요. 한 합참의장이 또 지휘하면서 연합방위체계가 가동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매우 자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군 전시작전권을 완전히 타 군이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작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휘관이 한국이 아니고 미군 사령관이다. 그러면 미군 사령관이 맡게 된 계기는 뭐냐? 1950년도 6·25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가 위태할 때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파병 온 유엔군 사령관인 미군 사령관한테 지휘권을 줬고요. 그다음에 53년도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지면서 미군한테 줬고 그다음에 미군들 일부 인원이 감축되면서 1978년도 11월 달에 그동안에 있던 미군이 철수하고 한반도 방위에 공백이 생길 것 같아서 1978년도에 한미연합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한반도에 있는 전작권이 완전히 미군 단독으로 행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당연히 후보자님도 알고 계신데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2011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이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다. 조건이 아닌 시기에 못을 박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전작권을 가지고 와도 우리 군의 작전능력이 충분하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강선영 위원 후보자께서 전작권 전환이 늦어지는 진짜 이유가 미국의 협상 태도가 미온적이거나 노무현 정부에서 지적해 온 것처럼 우리 군의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강선영 위원 왜? 전작권이라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이 돼 가지고 매우 많은 과정을 거쳐서 2015년 11월에 한미 국방부장관에 의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이 서명됐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뭐였느냐? 첫 번째는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군사적 능력을 갖추었는가. 두 번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었는가. 세 번째는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역내 안보 환경이 조성되었는가입니다.

첫 번째, 군사적 능력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건 의지와 능력이 동반되어야 되기는 하지만 군사적 능력은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찰감시자산이 부족하고요. 두 번째 조건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이 아직도 상존하고요. 세 번째는 북한이 꾸준히 중국과, 특히 러시아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면서 한반도 역내 상황이 아직도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의지가 부족하거나 미군에 일방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전작권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면 생각을 하셨는데 이런 조건과 상관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전작권 전환은 임기 내에 목표로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제가 밝힌 내용입니다. 동시에 평시와 전시 전작권 전환 이 두 가지는 보수 정권인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때 최초로 시작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어느 조건을 초월해서 시기와 조건, 여러 가지 변화와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것은, 기본적인 큰 틀은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 그다음에 양국에 대한 조건의 합의, 충족 이행 이것이 기본 전제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선영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예, 더 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지금 안 계신데, 앞서 오전에 박선원 위원님께서 2단계를 마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조건이 되고 나면 이것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FOC. IOC, FOC, FMC라는 세 가지 단계 중에 아시겠지만 FOC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FOC 진행 중인데 지금 이것이 아직 명확하게 양쪽에서 검증이 안 돼서 FOC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북한의 핵 위협과 그다음에 한반도를 둘러싼 아시아의 지금 역내 상황이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안보만큼은 여야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을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시고 정말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북한의 핵 위협이 얼마나 이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시작전권을 가졌을 때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한반도에 있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요소이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한 합참의장과 그다음에 연합사 부사령관이 충분히 우리 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미군이 단독적으로 전작권을 행사한다라는 것이 아닌 것을 후보자님은 충분히 아시니까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보수 일부 인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정쟁이 아닌 정말 국익을 우선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국가의 가장 중대하고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고 일반적으로 말씀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잘 경청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후보자님,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판문점 평가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저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 그런지……

핵심 내용이 뭘니까, 후보자님?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 전에……

○윤상현 위원 판문점 평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판문점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가……

○윤상현 위원 판문점평화선언의 내용이 뭘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윤상현 위원**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합의한 게 뭐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제가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윤상현 위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잠시 생각이 안 나셨지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국제사회 또 우리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윤상현 위원**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돌이켜 보건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 비핵화 달성됐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어렵습니다.

○**윤상현 위원** 달성 안 됐지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핵무장이 돼 버렸지요. 북한 핵무기 50여 기다, 80여 기다. 핵무기 적어도 50여 기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로 했는데 완전히 한반도의 핵무장이 돼 버려요.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됐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겁니다. 북한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를 속인 겁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속아 주려고 노력한 면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위장 평화에 속아서 합의한 게 뭐니까? 9·19 군사합의입니다, 후보자님. 9·19 군사합의 복원하시려고 한다 말씀하셨지요, 후보자님? 맞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19 군사합의는 바로 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낮은 단계부터의 소통과 서로 간의 상호신뢰가 구축이 된 다음에 이게 복원되는 것이지 복원한다고 해서 복원되는……

○**윤상현 위원** 아니, 저는 복원이 아니라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협상?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재협상 정도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위원** 왜냐? 9·19 군사합의의 가장 맹점이 뭐니까?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맹점보다는 9·19 군사합의 자체에……

○**윤상현 위원** 적대행위를 중지한다 어쩐다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께서 4500여 회 위반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하는 게 정찰·감시 기능을 대폭 약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휴전선 이북에 장사정포가 1000여 문 있다, 이것에 대해서……

끝났습니까?

장사정포에 대해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무인기를 띄워서 정찰해야 됩니다. 이걸 못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불합리한 안보 문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당연히 재협상해야 된다……

더군다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때 합의한 게 GP를 열한 곳씩 철수시킨다, 불능화시킨다 했는데 1500억 들여서 우리 GP 열한 개 철거시켰습니다. 이걸 다시 복원하는데 2033년까지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3개월 만에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야지요. 당연히 복원이 아니라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정찰자산 문제는 북한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우위에 선점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손해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우리가 대폭 양보를 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동시에 GP 문제는 북한은 GP가 GOP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GP, GOP가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경계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보고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윤상현 위원** 그래서 GP 철거한 것에 대해서 우리 당시 합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 GP가 불능화가 안 됐는데 불능화한 것처럼 유엔사에다 보고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속였습니다.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이런 합참이 어느 나라 합참입니까? 이거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합참에 관련된 사람들 가만두셔야 됩니까? 문책해야지요.

그리고 감사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만천하에 드러내야지요. 두 번 다시 이렇게 남북 합의를 위반하고 우리 스스로 진실을 은폐하고 우리를 속이려는, 정말로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발본색원해야 되지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GP가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비공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깊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윤상현 위원** 공개해야지요.

○**위원장 성일중** 윤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위원** 오늘 장관후보자 모두발언 중에서 문민 통제 강화와 국민의 군대 재건제가 매우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군 문민화와 관련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군이 제복 입은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병주 위원님께서 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후보자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여기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대학교수였는데요. 국방부의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교육체계를 보니까 낙제점도 주기 어렵다. 있어야지 낙제점을 주는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군인 스스로가 군복 입은 민주시민이라는 개념도 부족하고 교육체계도 부족하고 또 군 스스로가 민주적 통제와 헌법적 가치를 판단할 그리고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체계 정립도 지금 없는 상태라고 여겨집니다.

후보자께서는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군인이 스스로가 민주시민이라고 인식을 하고 또 국민의 군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방부의 환경과 체계 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필요성은 우리가 이미 12·3 불법 내란·계엄에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국회·선관위 진입에 김용현 장관 등 계엄 수뇌부들의 위법한 명령에도 맹목적으로 복종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군의 민주주의교육이 너무 부재한 결과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교육자여서 사관학교들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육군사관학교는 2024년에 유일한 계엄 관련 교육으로 여겨졌던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없지요. 제외됐고 또 공군사관학교는 아무것도 없고요. 해군사관학교에서는 국제관계학과에서 ‘한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수업이 있을 뿐이고 간호사관학교에서는 ‘민주사회와 시민’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있었는데 필수는 아니고 또

교양선택과목이더라고요. 후보자가 헌법 및 민주시민 교육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교육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과목 가지고는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국가안보를 책임질 지휘관이 될 사관학교 생도 교육이 매우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군복 입은 시민이 아닌 군 순혈주의에 갇히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되면서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께서 군의 민주주의와 헌법교육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또 정상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래 복지정책이 전공이어서요 군 복지, 군 인권과 관련해 가지고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대책과 관련된 것입니다. 장관후보자에게 제가 이것을 읽어 드릴 텐데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12·3 불법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많이 상처 입고 자긍심이 많이 상실되어 있다. 이 무형의 가치인 정신력과 자긍심을 회복시켜 주는 일이 어떤 무기체계보다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억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백선희 위원 후보자님의 말씀이었고 저 역시 이 말에 매우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계엄이 있었고 그리고 올해 1월 달하고 2월 달에 이 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장병들이 사실, 국민들의 트라우마도 매우 심각합니다마는 군 장병들도 역시 트라우마 상태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토론회도 진행을 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관련된 대책이 너무도 미흡했기 때문에 제가 일단, 계엄 당시에 동원된 군이 한 17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의 계엄 트라우마와 관련된 것은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응급조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국방부에 요청을 했고 전수가, 모두가 심리적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트라우마 전문가는 아니어서 전문교육을 조금 시켜 줘야 된다고 하는 요청도 했었고 이 부분도 국방부에서 수용을 해 주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민관군 정신건강 공동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장병 정신건강 증진 방안을 수립해야 된다고 요청을 했었고요. 현재 민관군 정신건강 공동 협의체가 구성돼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장관후보자에게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사실은 계엄 상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해마다 자살하는 장병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군인들이 대민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대민 업무를 할 때 산불 재난에도 동원이 되기도 하고 또 홍수에도 동원이 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상당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1분 더 드리세요.

○백선희 위원 그래서 일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따 한꺼번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의료공백입니다. 군 내부의 의료공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2024년 2월

이후에 의료과업, 지금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민간 비상진료체계도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열아홉 차례에 걸쳐서 약 3000명의 군의관이 파견돼서 국가 의료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 큰 역할을 했으나 그런데 막상 상대적으로 군 의료시스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의대생들은 군의관으로 가야지 이 의료체계가 유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의료공백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2022년에는 의대생 중에서 현역 입영 인원수가 191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25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2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1분 더 드리세요.

**○백선희 위원** 그래서 의료체계 붕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의료체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위탁교육도 하고 있고 계약학과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를 삼아서 군 의료체계를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의정 갈등이 아니더라도 지금 군의관으로 갈 의대생들이 36개월 복무 대신 1년 6개월 일반 현역병을 선택하고 있고 또 병사 봉급에도 큰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대책을 뭘 했으면 좋겠는가를 생각하면서,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아이디어입니다마는 현재 이런 위탁교육 말고 군의 의료체계 안정화를 위해서 국군의 무사관학교 설립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국군의무사관학교와 더불어서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통합해서 군 의료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새로운 접근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1분 더 드리세요. 워낙 열정적으로 하셔서요.

**○백선희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군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중에서도 여군 비율 확대가 있었고 그리고 국방개혁 중에서도 여군 비율 확대가 있습니다. 사관학교 여성의 선발 비율 자체도 높여야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발 비율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여군이 여기서 직업으로서 같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무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저는 이것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무하는, 장기 복무하는 여군이 2022년 이후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는 일·가정 양립 여건이 너무도 낮습니다.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군 장교의 한 90%, 부사관의 80% 정도가 자녀 양육 문제로 전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위원님, 이제 정리하시지요.

**○백선희 위원** 성희롱·성폭력 문제 등등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검토해 줘서 여성 인권을, 여군의 인권을 보호하는 군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위원님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군 비율은 현재 지금 10.9%고요 27년까지 15%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군 비율이 높아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지와 근무여건 환경 개선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사계의 권위자와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국방 의료부문뿐이 아니라 교도소, 도서지방, 군의원, 공공의료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복합적인 요소가 여기에 녹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 장병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은 군만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병리 현상이 연속적으로 군에까지 전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회 치유의 일환으로서 우리 군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장병 정신건강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되기에는 사실 유형의 무기보다는 무형의 무기가 3대 7로 훨씬 더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병들의 정신건강도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백선희 위원님 위낙 열정적으로 하셔서 약 10여 분 정도 쓰셨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저도 열정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방부하고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논의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정책방향의 지표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부승찬 위원 우리 군이 지금 저출산으로 병력 감소가 너무나 불 보듯 뻔한 미래 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전 국방부장관이었던 김용현 씨가 본회의장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초급간부들 숙소에 녹물이 나온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 본회의장에서 그 얘기는 했는데 정부 예산편성안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 안 되고 올라와서 저희 국방위 예산소위에서 증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부승찬 위원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여기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한목소리로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 개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부승찬 위원 그리고 좋은 무기 하나 사지 않으면 다 해결된다는 이야기도 나돌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좋은 무기를 들여오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운용 자원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뽑지도 못해.

23년도 통계를 보면, 충원율을 보면 육군이 장교가 88%, 부사관이 45.8%이고 해군이 87.2%, 부사관이 60.7%, 공군이 87%,—장교입니다—부사관이 89%, 해병이 72%, 부사관이 56.3%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어요. 취임하시면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래서 제가 모두에 국방의 효율화, 국방경영의 효율화를 먼저 지표로 삼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의 중복과 누수 또 방만한 경영 이

런 것들도 다 포함해 가지고 외부의 진단을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한 것 같고. 그러니까 하드 파워적인 어떤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는 이게 사업적으로 불용이 되든 뭐하든 국방예산에 반영을 시켜요. 그런데 인간에 대한 투자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공허한 메아리, 어느 장관님도 여기 국방위에 와서 약속을 하고 강조했지만 이것을 지키신 분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 기재부도 본인들이 책상에 앉아서 근무를 하는 게 군의 존재 가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안보는 공기와도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공기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소중함을 못 느껴요, 늘 있는 거니까. 안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안보를 이뤄 내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도 없고 등한시해요. 이것은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정치력을 발휘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장관님도 이전 장관들처럼 여기서 그냥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초급간부 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기재부장관하고도 싸우고 대통령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인간에 대한 투자가 먼저여야 되지요. 과실은 다 따먹으면서 실질적으로 그 나무에 대한 관리는 전혀 하지 않는 이게 국방부의 지금까지 보여 왔던 그런 행위들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방법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인류의 핵심 가치는 항상 사람에 있다고 봅니다. 문민 국방장관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확보와 인력 운용·충원 문제, 국회와 소통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기재부장관뿐만 아니라 주무관, 사무관 할 것 없이 다층적으로 만나서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장병들이 신바람 나는 병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1분 더 드리십시오.

○부승찬 위원 지금 사업 중에 광주 마륙동 탄약고 이전 사업 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마륙동 탄약고 이전 사업은 아마 한 80% 이상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요.

○부승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80%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광주공항 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중지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80% 해서 총 사업비가 3262억 원 중에 지금 기집행액이 2681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681억 원을 투입하고 광주기지 이전한다고 해서 탄약고 이전 사업이 중지돼서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광주 시민들의 불편이 그리고 재산상의 불이익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기지 이전한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광주기지 이전하는 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예측이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결정 나고도 이전하는 데 10년 이상 소요되는데 작전적으로 봤을 때도 군기지 인근에, 지금 이전 사업 부지에 20%만 더 투자해서 빨리 신축하는 게 예산 집행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80%의 사업 진척을 봤다면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 20%는 충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 이번에는 평산의 우라늄공장 핵폐수 무단 방류와 관련돼서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이 2006년도에 침전지, 슬러지가 있는 모습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24년도의 내용인데 슬러지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지하배수로를 설치해 가지고 무단 방류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강과 서해의 오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것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다음.

이 내용은 열적외선 위성영상하고 야간 조도 영상분석, 최근에 찍은 겁니다. 지금 심야 시간대에도 불빛이 포착되고 있고 이것은 곧 공장의 가동률이 상당히 상승했다라는 신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결위 때 이와 관련돼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해 보니까 통일부, 해수부, 국방부 다 질문해 봤는데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책임지고 이걸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동의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제1차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 시료 채취해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주문을 주셔서 가지고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지난 7월 4일 언론에서 이와 관련돼서 보도를 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강화도지역 일대의 방사능 수치를 검사해 보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를 측정 한 것보다 50배 정도 더 많은 양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들어 보셨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임종득 위원 지금 이 문제는 뭔가 하면 지난 23년 8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가 있을 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 문제를 우려하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거기에 후보자님께서도 같이 참여를 하셨어요. 이것 보시면 아실 텐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일본엔 눈치, 국민은 방치’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보다도 50배 이상이 우리 지근거리인 한강과 서해에서 오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컨트롤타워도 없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작권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입장……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오늘 오전부터 말씀을 죽 하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 봐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실제 장관후보자에게서 합참에 질문한 내용이에요, 시한을 정해 놓고 전환할 수 있는가. 합참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절대 먼저 전작권 전환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 이런 보고를 받은 적 있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업무보고 때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오늘 답변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에 하겠다는 의지가 좀 보입니다.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것은 목표를 세운 것이고 우리의 추진 의지를 보여 준 것입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의 답변은 조금 달라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다른 채널에서도 전혀 진행되는 것이 없다. 통상·안보 협상에 쓸 카드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전에 후보께서 발언하는 모습을 모니터링한 대통령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안 후보자의 입장 표명은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의견입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작권 전환을 임기 내에 환수하겠다는 것이 목표로 정해져 있고 그것은 그만큼 추진 의지를 갖고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전작권 전환의 문제가 지금까지 수차례 질문과 답변이 있어 왔습니다마는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이슈이고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렇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정부에서 서로 다른 입장, 합참의 생각이 좀 다르고 후보자님의 생각이 다르고 그다음에 기획위나 대통령실 입장은 또 다르잖아요. 안보실장님 입장도 다르고 대통령실의 오늘 발언 내용하고 또 다르고. 이것은 뭔가 좀 조율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래 가지고는 미국하고 협상하거나 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제가 취임하고 나면 합참과 여론의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다음에 할까요?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전략적 유연성’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PPT 띄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GDP 대비 5% 이야기를 NATO에서도 주문하였고 아시아 동맹국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방위비를 늘리는 부분들, 동맹들에게 지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 언급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방위비분담금은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테이بل 위에 올라온 바가,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로서의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임종득 위원** 다음 PPT 줘.

지금 다니엘 케인 미 합참의장의 발언 내용을 죽 해 놔는데 여기 보면 3국협력이 필요하고 진정한 책임 분담 이야기를 쪽 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한반도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에 관련된 전략적 유연성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전략적 유연성은 미 측에서 약 10여 년 전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한미가 협의와 합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어느 일방이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위원** 그러면 장관후보자께서는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합니까?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는 게 좋다고 봐요,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저는 동의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임종득 위원** 다음 슬라이드 좀 띄워 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발언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전략적 유연성을 고려하는, 신속기동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 지금 장관후보자의 생각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임종득 위원** 그렇습니까? 저 답변을 한번 보세요.

미군이 철수해 버리겠다는 얘기지요, 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저그들이 필요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미국의 신속기동군의 어떤 운영 개념, 전략적 유연성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지금 찬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위험한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에게 여쭙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전략적 유연성은 글자 그대로 전략적 유연성인데요.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이렇게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임종득 위원** 철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한미군을 대만 사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환하라고 했을 때 장관의 입장이 어떻겠느냐는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제가 아직 국무위원후보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국무위원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쭙본 겁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득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일종 후보자님, 한미일 연합훈련 같은 경우 찬성을 하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위원장 성일종 한미일 해상훈련 같은 경우를 계속적으로 해 왔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한 거예요, 송영무 장관 시절에.

앞으로도 이 훈련하는 것을 동의하시나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한미일 연합훈련은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22년 9월 28일 날 한미일 연합훈련 일정 및 장소 또 독도에서부터 거리를, SNS에 후보자님께서 훈련일정·장소 등을 발표를 하셨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것 발표하신 게, 이제 장관이 되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야당 위원이기는 했지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 당시에는 야당 위원으로서 국민적 알권리 차원에서, 저는 이게 일반 문건이기 때문에 오프 더 레코드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훈련장소가 다른 곳이 아닌 아주 예민한 장소인 독도 인근에서 훈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SNS에 보도를 한 겁니다.

○위원장 성일종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장관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고려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 알권리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그 주변에서 중국의 정보함이 활동 중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위원장 성일종 보도가 다 됐었습니다.

그러면 핵잠을 비롯한 잠수함이 수중에서 작전할 때는 음파를 비롯해서 이 작전과 관련된 것들이 적국에 들어가거나 정보가 입력이 돼 버리면 그 핵잠의 모든 기본적 사항이 입력이 돼서 다른 지역이 작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시절에는 이 문제를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장관의 입장에서 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입장 변경을 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입장 변경이라기보다는요 그 훈련한 위치가 제주 남방이나 일본 연근해 같으면 모르는데……

○위원장 성일종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독도 인근에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짚어야겠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독도에서 185km가 떨어진 곳이고요, 일본으로서는 120km 떨어진 공해 상이에요, 동해의. 이것 다 알고 계셨을 거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국방부에서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성명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장관이 되실 거예요. 그리돼 버리면 이렇게 의정활동 한 것하고 장관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제 장관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또 하나, 한미일 훈련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 그러셨지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이재명 대표께서 22년 10월 7일 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훈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자위대를 정식군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왜 하필 독도 근처에서 훈련을 하냐, 극단적 친일행위로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실용을 주장하니까 이 부분이 수정이 되겠지요. 국민들한테 친일 물이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한 거예요, 우파 정부든 좌파 정부든.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 훈련 하실 거예요. 저는 또 그것에 대해서 지지를 할 거고요. 이런 국방의 문제를 어떻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했냐는 거지요. 그래서 장관 가시기 전에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국무위원후보자가 대통령님의 발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똑같은 사안입니다. 이 건과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사안이 똑같은 겁니다. 이게 독도에……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러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표명할 수 있으되……

○위원장 성일종 독도에서 185km 떨어졌고 일본으로부터 120km 떨어져 있는 한미일 잠수함 훈련이었거든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서 봤을 때 독도라는 예민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훈련장소가 일본 연근해나 제주도 남방 같은 데서 훈련을 하면 별반 문제가 안 되는데 왜 하필이면 독도 인근에서 훈련을 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서 제가 그때 당시에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장관후보자님, 이곳은 말이지요 북한의 잠수함이 지나가는 골목에 작전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효용성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그러니까……

○위원장 성일종 다음에……

말씀하실 게 있나요?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그러니까 재난·재해·인도적 훈련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장소와 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러나 한미일이 합동으로 연합훈련 했던 그런 곳이고 장소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국무위원후보자로서 대통령님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이 독도는 말이지요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요? 그다음에 센카쿠를 지금 일본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독도 문제에,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것을 꺼내서 확대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제는 장관 되시면 야당의 눈으로 보시지 말아야 된다, 대한민국 전체의 눈으로 봐야

된다……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정쟁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게 전부 다 장관께서 정쟁의 눈으로 보셨던 것이고 지금 대통령께서 보셨던 정쟁의 눈으로 친일몰이를 했던 거거든요.

이제 집권을 하고 나니까 이리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이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과의 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후보자 안규백 제가 말씀드렸다고 피 국무위원후보자가 대통령님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재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회의를 정회하기 전에 후보자님, 야당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자료를 강선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16년인가요 이렇게 국방위 한곳에 계시면서 전문성도 쌓으셨고 또 훌륭한 인품도 갖고 계셔서 웬만하면 오늘 청문회를 한 거나 여러 가지 봤었을 때 바로 인사청문을 채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군을 통솔하고 군 중에서도 장관에, 회사로 따지면 군의 CEO에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병적기록부 문제 그리고 주식거래에 대한 문제를 8시 반에 속개하기 전까지 자료를 열람하거나 보여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다른 상임위하고는 좀 다르게 군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으면 하는 게 위원장의 생각이고 또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이 부분은 상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8시 30분에 다시 속개를 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람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 일정과 여러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8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 위원(15인)

강대식 강선영 김병기 김병주 박선원 백선희 부승찬 성일종 윤상현 임종득  
정청래 추미애 한기호 황명선 황 회

#### ○청가 위원(1인)

김민석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전문위원 서덕교

## ○출석 공직후보자

안규백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이영빈

기획관리관 김경욱

## 【보고사항】

## ○의안 회부

##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7. 4.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5)

7월 7일 회부됨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2025. 7. 7.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9)

7월 8일 회부됨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8.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0)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8.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1)

이상 2건 7월 9일 회부됨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9.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1)

7월 10일 회부됨

## ○관련의안 회부

##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7. 7.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1)

7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8.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3)

7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 ○행정입법 제출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대통령령	제35619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	2025. 7. 7.
대통령령	제35633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	2025. 7. 7.
대통령령	제35637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	2025. 7. 7.
대통령령	제35634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무청	2025. 7. 8.
국방부령	제1180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병무청	2025. 7. 8.
대통령령	제35643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병무청	2025. 7. 8.
국방부령	제1181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병무청	2025. 7. 8.

구분	공포번호	행정입법명	소관부처	공포일자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5632호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	2025. 7. 11.